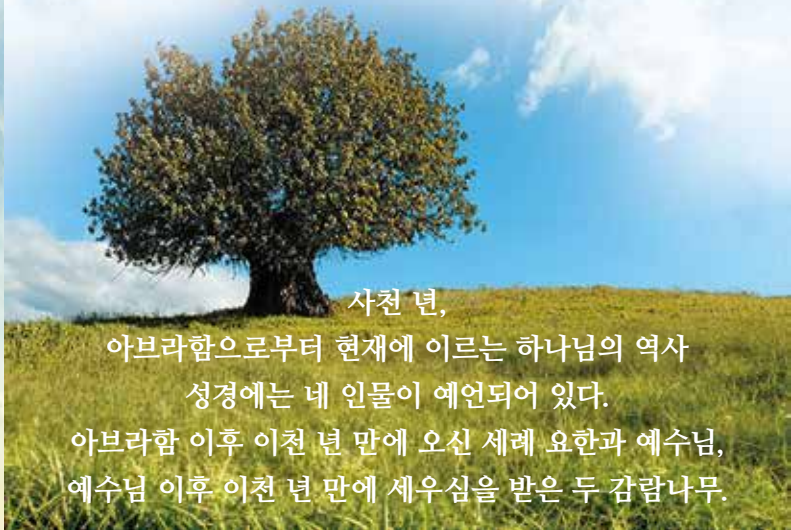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16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발행 일 | 2012년 7월 4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93-9

ISBN 978-89-6449-223-9 (세트)

에덴의
메아리 16



스키 타는 저자 (2005년 당시)



문화의 전당. 국내외 문화 교류를 위해 4천 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공연장이 건설 중에 있다. 가운데 네 천사상을 상징하는 네 생물의 형상이 있고,(계4:6-7) 양쪽 끝에 면류관의 상징물이 얹혀 있다.



문화의 전당. 놀이동산 옆 전시장 방향에서 본 문화의 전당

Prologue

“책머리에”

- 두 감람나무를 증거하여 -

1)

한강 백사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어림잡아 10만, 스물 네 개의 마이크를 통하여 찬송가 소리가 온통 진동하는 가운데 흰 와이셔츠 차림의 청년이 단에 선다. 환호하는 박수소리. 잠시 찬송이 중단된다. 단상에는 웬 이슬이 뽀얗게 내리고 관중들 사이에는 향취가 진동한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주위를 환히 밝히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감람나무를 증거했다. 관중들은 깜짝 놀라 눈을 부비고 다시 쳐다본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다.

“병든 자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의 말 한마디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병어리가 말을 한다. 관중은 잠시 숨을 죽이고 저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저가 누군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가? 그가 단에서 내려와 관중들의 머리에 손을 대자 뱃속까지 생수가 흘러내린다.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한마디 한마디가 추상같다. 저마다 회개의 눈물에 흥건히 젖는다. 저가 대체 누구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처럼 뒤흔드는가?

그가 안찰을 하면 으레 장정 네 사람이 손발을 꼭 잡는다. 배에 손을 슬쩍 대는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다. 혹자는 하도 아파서 고향을 지르기도 한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죄악을 물리치는 순간이다.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쫓겨나 쥐구멍을 찾는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 “저가 대체 누구인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의 주를 모신 감람나무 외다.” 신원을 밝히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통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감사의 눈물을 감당치 못한다. 그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하려는 사람들은 소지한 금은보화며 재산을 송두리째 바치기도 한다. 결혼을 포기하고 학업을 중단하며 감람나무의 가지로 충성을 다짐한다.

그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성경에 감람나무가 둘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히 둘째 감람나무에게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그는 큰 모험을 무릅쓴다. 성경을 부인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는 것이다.

이것은 실수 중의 실수였다.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인 교만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내리던 은혜의 다림줄이 끊겨, 언제나 맨송맨송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발광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는 드디어 발광하고 말았다. 이미 자기를 가눌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외람되게 자기 자신을 지상의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그토록 정성껏 섬기던 주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매도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은혜의 다림줄이 끊기는 것은 주의 종에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는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집회에서 불이 쏟아져 내리고 저들을 호위하던 성화가 생각났다. 무심코 찍은 카메라에 나타난 것이다.

2)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중 감람나무가 나선다. 이리하여 둘째 감람나무 역사가 활발히 전개된다. 하늘에서는 그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렸다. 이슬이 내리고 향취가 진동하고 생수가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시체에 바르면 부드럽게 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였다. 말세에 우리나라에 성경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 이긴자가 나타나, 한 분은 모세의 역할을 하여 성령의 씨를 부리고, 한 분은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여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된다는 강태온 목사의

예언을 상기하게 된다.

“박 장로도 한때는 잘나가다가 망했는데, 너라고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 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입을 모아 비아냥거렸다. 그는 이들에게 나중 감람나무 역사가 성공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다짐한다. 나중 감람나무 역사가 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좌절되고 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중 감람나무는 무엇보다도 앞선 감람 나무의 허점을 주시하고 경계한다.

“내가 앞선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때, 네게도 기름을 부었노 라.”

듣고 보니 집히는 데가 있다.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백성(감 람나무 가지)에게 전하라.” 그는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단에 선다.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 놓는다.

그의 설교를 묶어 16권의 설교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설교 는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어 기독교의 원리를 밝힌다. 그의 녹음테이프를 들을 때에도 향취가 진동 하고, 녹음기가 놓인 단상에도 이슬이 안개처럼 자욱이 내린다. 앞 선 역사에 실망한 하나님은 그에게 간섭이 심하다. “그건 그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여라.”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크신 역사를 이끌어 간다. 안찰로 성령을 물 붓듯이 부 어 준다. 생수로 가지들의 찌들고 때 묻은 심령을 씻어 준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

단의 정체이다. 사단이 그를 혐오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는 사단을 고발하고 그 박멸을 위해 손에 든 검의 날을 세운다. 그가 짙어진 막중한 소임은 아마겟돈에서의 결전에 대비하여 은혜 안에서 일정한 하나님의 군병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는 말씀 그대로, (계 14:16) 영의 세계에서 이긴자로서 장차 이 군병을 이끌고, 사단의 세력을 소탕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오랜 경륜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 주의 종의 열여섯 번째 설교집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것은 요컨대 보혜사 성령의 말씀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뚝 솟은 하나의 금자탑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설교집을 읽고 깨닫는 사람에게 복이 가게 되어 있다.

교정을 보아주신 김윤성 목사님께 감사하고, 이 설교집에 대해 여러모로 도와주신 윤상학 박사님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테이프를 녹취한 임정순 양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한다.

2005년 3월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라고 하셨다.(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

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러들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6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1

Part 01.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면

- 01 유업으로 주시는 생수 22
- 02 구원의 원리 32
- 03 대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39
- 04 14만 4천 왕국의 구조 45
- 05 세마포는 군복이다 54
- 06 용에 대하여 63
- 07 생령에 대하여 73

Part 02.

보혜사 성령을 말한다

- 08 하나님의 역사는 왜 순탄치 않은가? 80
- 09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1) 87
- 10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2) 98
- 11 강 옆의 두 사람에게 대하여 104
- 12 왜 여기서는 피어 가고 저기서는 썩어 가는가? 111
- 13 육체와 영체 123

Part 03.

진리의 오솔길에서

- 14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에 대하여 134
- 15 하나님을 찬양하라 143
- 16 섭리 안에서 155
- 17 하늘에서의 전쟁 162
- 18 신과 신의 대결 양상 171
- 19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하여 181
- 20 여호수아와 돌 188



Part 04.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 21 지옥의 현주소 200
- 22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 210
- 23 삶과 죽음 219
- 24 어느 신의 지배를 받느냐가 문제다 233
- 25 신과 신의 전쟁에 대하여 244
- 26 주님은 어찌하여 길인가? 251
- 27 오늘의 우리 역사 258

Part 01.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면



1. 유업으로 주시는 생수 · 2. 구원의 원리 · 3. 대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
4. 14만 4천 왕국의 구조 · 5. 세마포는 군복이다 · 6. 용에 대하여 · 7. 생령에 대하여

Chapter 01.

유업으로 주시는 생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것이 새로운 언약을 시행할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증거한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골2:17) 첫 언약의 모든 사건들은 새 언약의 그림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늘의 형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비유로 사용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에서 그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하늘이 종이 축 말리듯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겁니다.(사34:4, 65:17)

“하늘이 종이 축 말리듯 사라진다.”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나 먹히는 거지, 지금은 별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정체가 밝혀지기 때문에,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옛날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혹은 “내 피를 마셔야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요6:54) 그래서 저는 오늘날 바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말씀이 핵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가 바로 그 생명체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뜻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공표하여, 실제로 지상 낙원을 이를 줄 알았었는데 죽어야 한다니, 의심도 하게 되고 또 이해를 못하여 부딪치기도 했던 겁니다.

주님이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한다.”고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시니까, 곁에서 따랐던 가장 신임을 받던 가롯 유다까지도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이분은 내가 찾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커져 예수님을 온 30년에 팔아 버리는 배신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저가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고 마시게 한다고 말하느냐,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항의를 묵살하면서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을 할 수가 없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언동을 보면 범상치 않은 인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는 받아들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심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이때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 때문에 고민에 빠졌는데, 그 말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요6:63) 그래서 바울은 “육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전15:50)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 육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못에

도 박히시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시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시장하여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 잡수려다가 열매가 없어 저주를 내렸습니다. “무슨 놈의 나무가 열매도 하나 없느냐?” 하고 저주를 내리자 그 무화과나무는 그만 말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밀이삭을 뜯어서 요기를 할 정도로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육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육을 갖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겁니까? 주님은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썩을 것이 존재하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조건을 갖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장사 지낸지 오래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신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마귀를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출20:3)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른 신의 존재를 시인하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도 이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역사도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주의 종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단계적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주장한 신앙의 원리가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요14:6)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신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하면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짐승 자체가 온전합니까?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짐승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 온전치 못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그 제사의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온전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히10:1)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겁니다. 온전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상에 온전한 생명체를 보내서, 온전치 못한 생명체를 온전한 생명체로 만들어서 데려가자 해서, 하늘에서는 그 작업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 온전한 생명체가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짐승의 피로 지낸 제사 제도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뜻에서 성전 휘장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마27:51)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필요 없어져서 찢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신령한 생축이 되셨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바뀐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생명수를 받게 된다.”(요7:38)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계22:17)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떠나면 너희들에게 생수가 임하게 된다. 그것이 곧 다른 보혜사이다. 이 다른 보혜사를 받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 세상 끝까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달라.”(요7:38-39, 행1:8 참고) 하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없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보내게 된다. 이것은 내 살과 피니라. 그러므로 보혜사를 받아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된다.”(요16:7 참고)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게 된다. 이 다른 보혜사는, 세상은 모르지만, 받는 너희들은 안다.”(요16:13, 14:17 참고) 또, “이 다른 보혜사를 받게 되면 내가 하는 일도 하겠거니와,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노라.”(요14:12, 16 참고)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따르던 자들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에 이곳저곳 나타나서 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다른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너희는 그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행1:8) 이렇게 당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 주님은 안 보이고 그들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간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게 되리라.”(행1:11)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므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베드로를 위시하여 당시의 12제자들과 믿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뜨거운 불이 내려, 그들은 힘이 솟아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이 나를 믿게 되면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됩니다.”(요7:38) 하고 말씀했는데, 그 생수의 은혜가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만일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초대 교회가 시작됐다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는 양상이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긴자가 나오면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계3:21) 그런데 이긴자가 나오지 못하고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거하다가 죽임도 당하고, 핍박도 받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셨습니다. 이긴

자가 어디서 나타날까 하고 살피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듣고 안 것입니다. 이긴자가 10명 가운데서 나타나든, 50명 가운데서 나타나든, 5,000명 가운데서 나타나든,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몇 억 가운데서 나타나도 이긴자의 역할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긴자가 2천 년 만에 나타나니, 하늘에서는 이제 이긴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왜 기다리는가? 감람나무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계21:6-7) 이것이 하나님 의 섭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시니까 그런 대행 역할을 하는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지상에 생수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2천 년 동안 계속 불과 같은 성령만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수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천 년 전에 간절히 말씀하신 내용을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라.’”(계21:5-7)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업이 뭐니까? 상속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야, 너는 내 유업을 이어라. 넌 내 유업을 이을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긴 주겠는데,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나오면 이걸 그에게 상속권으로 주겠다고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21:7) 이게 인간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무도 이 성경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생수를 유업으로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닌데,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해 주겠다고는 겁니다.

성서 66권 가운데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는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다 종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증거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주님에게 항의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2:8) ‘내가 안식일의 주인공인데, 안식일이 뭐 필요하냐? 내가 가는 곳이 안식이고,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게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존재는 어떠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부자지간처럼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하시고, “너를 대하는 자가 나를 대하는 것이니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체계가 서야 합니다. 체계가 서야만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2천 년 동안 내렸던 불과 같은 성령이 아닙니다. 앞선 역사에 서부터 생수의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짓밟아 버리게 되면 누구의 살과 피를 짓밟아 버린 겁니까? 앞선 역사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주의 살과 피를 짓밟아 버린 범 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Chapter 02.

구원의 원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으심을 받기 전부터 두 영이 존재했습니다. 그 두 영을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고 비유해서 말합니다. 빛을 갖고 있는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둠에 쌓인 신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혹은 악마다, 하고 말합니다.

두 신의 적대 관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을 통하여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서로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빛의 세계를 그리스도가 잘 아신다면, 어둠의 세계는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잘 아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 공

포를 느끼게 됩니다. 성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문제는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부터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 답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으면 예수니, 하나님이니, 사단이니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또 누가 죽음을 주관하는가? 이게 첫째 문제입니다. 성서에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악과가 죽지 않을 존재를 죽게 만든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존재를 죽지 않게 만드는 과일이 생명과일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그곳에는 생명과일이라는 영생하는 과일이 있고, 먹으면 죽음을 가져오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 과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안에 들어가도록 뿔힘을 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계 22:4) 하나님의 얼굴을 특징인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이 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

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은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흠으로 빚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혼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인데 문을 잠가도 나타나시니,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몰래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른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12제자들은 암암리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구수회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였지만, 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 “나는 못이 박혔던 주님의 손을 만져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요20:25)고 말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럼 내 손을 만져 봐라.”해서 만져 봤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요20:29) 이렇게 제자들을 꾸지람 겸 타이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자꾸 변모해서 나타나시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가알부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뭐 먹을 게 없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눅24:41-43) 이런 경우를 생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니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생령은 영인데, 육체를 가지고 감각을 느끼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 드린 겁니다. 문을 열지 않고 방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은 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무조건 부인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귀신으로 몰아붙이니까 귀신이 아니라는 뜻에서 생선도 잡쉬 보시고, 도마에게 못 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귀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육체 같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못 자국을 만져 보게 하시고 또 생선을 잡수시는 것으로 보아 육체가 분명한데, 문을 잠가 놓은 방에 불속 나타나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공존하는 생명체를 생령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하와는 신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길 하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체를 가졌던 아담이 변하는 모습을 봐야겠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위도 타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화과나무 앞으로 몸을 가리고, **(창3:7)**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3:21)**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

자, 생령을 지닌 생명체가 육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생령의 생명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면, 즉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로 돌아오게 한다면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면 자기가 죽어서 신이 됐다는 것을 압니다. 육으로는 가지 못하는 곳으로 날아가고, 건너지 못하는 강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물 위를 걷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현재 물 위로 못 가는데, 마음대로 다닌다면 그 세계가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반대로, 두들겨 맞고 물고문을 당하는 것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물고문을 받아 꼴까닥 하고 졸도하면 그 다음은 고통을 모릅니다. 그걸 까무러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졸도라는 게 없습니다. 졸도를 해야 고통이 없는데, 졸도하는 일이 없게 되면 고통이 약합니까? 강합니다. 환장할 애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이고, 죽어도 재미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죽는다고 당장 무슨 형벌이 내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반드시 안내자가 옵니다. 영의 세계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신의 세력에게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원자탄이 떨어져 10만 명이 모두 죽었다면 어떻게 다 데려가느냐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입니다.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는 느낌을 갖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심스럽게 영의 세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회가 2천 년 동안 믿어온 기독교를 제가 논평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놀랍고도 실질적인 기독교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와 닿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긴자다, 뭐다 해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거부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전한다.” (요16:14)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할 때에는 자기가 알아서 말합니까, 신의 작용이 있는 겁니까? 신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이슬같이 온다, 향취로 온다, 생수로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신의 작용입니다.

주의 역사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것이 이긴자인데, 그 과정에서 대적하는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와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군병을 배출시키는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이긴자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두에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긴자가 스스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긴자가 나타나

면 주님의 모든 권세를 맡아 가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긴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손을 대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속의 악령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직접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면 이긴자의 안찰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긴자는 주의 신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눈엔 안 보이고, 이긴자만 눈앞에 있으니까, 사람의 움직임만 가지고 판단하여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거부감이 없어지고 받아들일 때 체계가 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Chapter 03.

대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는 궁금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은 존재하는 것이고, 영의 세계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심판을 거쳐서 만나는 순간의 장면을 묘사한 찬송가 532장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보시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성안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있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있겠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값으로 따져도 오늘날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왜 그렇게 호화로운 옷을 요구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사치스러운 정도로 각종 보석이 박힌 흉패를 가슴에 붙이는 그러한 옷을 지어 입도록 특별 지시를 하셨는가?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옷 한 벌 가지고도 평생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너무나 값이 비싸 도둑놈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종 보석을 연마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는 것은 요즘 기술 가지고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흉패라고 하여, 단단한 실로 보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강한 베실로 짠 그 피륙에다가 보석을 달고, 여간해서 떨어지지 않게 가슴에 붙이고, 이마에는 금으로 패를 만들어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써서, 관 위에 청색 끈으로 묶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옛날 이 지구상에는 왕들이 위엄을 갖추기 위해 왕관을 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왕조 때 왕관을 대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비싼 왕관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쓰는 관입니다. 거기에는 최고로 비싼 각종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급스러운 의상을 갖추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인물들도 그렇게 빛을 발산하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입는 옷을 여호와께서 최상의 고급으로 지으라고 디자인을 해 주신 겁니다.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하늘나라에서 이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첫 언약은 구약 시대에 지구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구상에 있었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얘기라면 하늘나라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와서 나에게 직접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그가 입는 옷은 이렇게 꾸며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는다면, 대제사장의 역할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계20:6, 22:4 참고)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시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누가 봤느냐?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이상 중에 봤습니다.

제가 요즘은 성서를 소개하면서도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모세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의상가들, 지금으로 말하면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도 아닙니다.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겁니다. 이것을 직접 지시한 게 성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옷입니다.

그렇게 한 번 지어 놓으신 다음에 여호와와 특명이 어떻게 내려졌느냐 하면, 이것을 아론만 입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지시한 옷을 꼭 입고서 지성소에 들어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라.” 하고 여호와께서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시기 전에는 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소라 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을 지성소라 해서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곳을 휘장으로 차단시켰다면, 대제사장이 보통 사람이란 뜻입니까? 아주 귀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눈에서 불꽃같은 것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상 중인데도 사도 요한이 기절을 해 버렸습니다.(계1:17) 이와 반대되는 것을 보고 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단8:27) 꿈에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는 모습을 본다면 혼절할 만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기절했을 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요한의 등을 툭툭 치면서, “요한아, 나다!” 그게 듣던 음성입니다. 요한이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주님입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너 보는 데서 일찍 죽임을 당했었지? 이제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의 존재가 되었다. 처음과 나중이니라.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었노라. 내 말을 자세히 듣고 일곱 교회에 전하여라.” 이렇게 시작되는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시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반가웠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모하는 것이 성서에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 주님의 본 모습을 볼 때하고 이 땅에 계실 때 모습으로 나타날 때하고 다릅니다. 만일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있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아이고, 총회장님!” 하고 반가울 겁니다.

요셉이 12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갔는데, 나중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야곱의 열한 아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봐도 모릅니다. 요셉이,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예, 가나안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살아 계시고, 어찌고 하니까, 요셉이가 말하다 말고 물러간 것입니다. 형들 보는 데서 올 수는 없는 고로, 물러가서 실컷 울고 나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젠

대단한 사건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역사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그 아내가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들은 실질적으로 무엇 하는 존재들입니까?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전쟁이 없습니까? 누가 되었든,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를 길러 달라는 사명을 맡았다면, 이게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보통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에 오신 겁니다. 그 귀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Chapter 04.

14만 4천 왕국의 구조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지극히 작은 천막이었습니다. 그럼 그 천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가?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경우에 매일 사건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일 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묶어서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던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상향입니다. 그 이상향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 보여준 희한한 일들이 앞으로 영의 세계에서 펼쳐질 적에 상상을 초월한 세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12평 정도 되는 천막이라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질 실질적인 건물의 모델하우스라면, 바로 그 조그마한 천막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도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영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육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열에 속하지만, 영적으로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수를 정해 났습니다.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으로 숫자를 정해 났는데, 이들이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의 대가를 영의 세계에서 받게 될 적에 엄청난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이 모임을 갖게 될 적에 성서에는 그 세계를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룩한 성은 엄청난 큰 성전인데, 그것을 주의 종이 이상 중에 보여주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나라의 그 성전을 축소판으로 해서 조그마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14만 4천이 들어가서 큰 모임을 갖는 그 엄청난, 국회의사당과 같은 그러한 장소를 상징해서, 주의 종이 앞으로 알곡성전 안에다 아주 작게라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가게 되면 14만 4천은 이런 모습의 엄청난 큰 황금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된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유스호스텔의 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가졌지만, 언젠가는 그런 영의 세계에 펼쳐지는 건축물의 축소판을 한번 우리가 손수 알곡성전에 지어서, 여러분이 직접 모임을 갖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론이 입는 옷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여 만들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옷의 모양을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본뜬 것입니다. 그 옷을 지상에서는 세마포로 만든 옷이다 해서 ‘세마포’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의 세계를 그림자로 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도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입혀 주는 옷을 ‘세마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 아닌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시110:4) 성서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고을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칠 정도로 육적으로는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 제도를 폐지하시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썼지만, 여의치가

않아 간단한 기록만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아론이 초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은 의상을 역대의 대 제사장들이 예수님 때까지 입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은 아론이 입던 옷차림으로 주님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생을 얻고자 믿지만,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다.”(요5:39)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했지만, 인자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의 강령과 율법과 규례와 모든 언약들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레 요한 때까지만 유효하다.”(눅16:1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폐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았습니다.(갈5:11)

그런데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3:20) “내가 스스로 와서 너희들에게 말하면 무슨 권위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복된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나와 하나님은 일체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요14:1 참고) 이렇게 주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람된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하고 일체라고 한다.” 참람된 말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가야바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을 때, 이

를 시인하자,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마26:65) 옷을 찢어 가면서 이놈이 참람된 말을 한다고 반박합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마17:24) 베드로가 주님에게 와서 말씀드리자, 주님은,

“이 집이 누구 거냐?”

“예, 하나님의 집입니다.”

“난 누구냐?”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에 아들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마17:25)

베드로가 어물어물하자, 그때서야 웃으시며 “알았다. 세상이 뭘 알아주겠느냐. 갖다 내라.” 하셔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도 잠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마24:2)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십여 년이 지나서 로마군대가 그 성전을 다 헐어서 대리석을 배에 싣고 로마로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벽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가 기초를 닦아갈 무렵에,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일 늦게 살아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를 갔을 때, 주님이 그를 택해 가지고 계시록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기록하여 목회자들에게 알리게 해서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2천 년이 가까워옵니다. 계시록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 보십시오. 사람은 몇 되지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네 알았습니다.” 해서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 도시가 되어 갑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씩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최초로, 정한 숫자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를 비유로 해서, 한 지파에 일만 이천 명씩, 14만 4천 명이다 해서, 14만 4천을 특징인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정하셨느냐?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인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계14:3) 또 14만 4천이 들어가는 성을 거룩한 성이다, 또 14만 4천이 들어가는 성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또 이 14만 4천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아내이다, 또 이 14만 4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듯이, 영의 세계의 대제사장, 즉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왕 권세를 맡습니다.(계20:4) 그럼 왕 권세를 맡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니,

하늘나라에서는 14만 4천 개의 왕국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너 잘했다, 못했다 하고 판단을 내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대제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어떤 권세를 맡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맡으니, 재판장이 되는 권세를 맡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 하는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니, 하늘나라에서도 그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가고 오지 못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게 되는데, 이런 권세를 갖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계 21:27) 그러면 주님의 생명책은 몇 만 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 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영의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의 대관식에서 ‘너는 14만 4천 명 중에 5번이다.’, ‘너는 14만 4천 명 중에 십만 번이다.’ 이렇게 정해 주는 장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연회장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이 소개하면서, “너는 지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몇 번째 자리에 앉아라.” 하면 천사들이 안내해서 그 자리에 안내해서 앉게 합니다. 14만 4천만큼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는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왕 권세를 맡으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의 왕 밑에 심판을 통해 백성이 만들어지고, 나

라가 이루어지니까, 14만 4천 개의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인구가 많은 중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지금 나라가 한 200개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14만 4천 개의 국가가 형성된다면 상상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일개 대한민국에, 남한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의사당도 들어가 보면 제법 으리으리하게 좌석이 돼 있고, 또 의사당에 의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다 따로 있는데, 영의 세계에 나라가 14만 4천 개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영의 세계를 얘기하기 전에, 천체를 한 번 보십시오. 내가 요즘 만날 얘기합니다만, 저 먼 거리의 은하계가 사진에 나오는데, 천만 광년을 간다느니 하고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일 년만 가도 그게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천만 년이 애들 장난입니까? 그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도 있다, 이런 게 우주다 하니, 어떻게 우리 머리로 우주의 크기를 판단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은 해가 나니까 밝지만, 저 반대쪽은 어둡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속에 있는 우리 ‘에덴성회’라는, 소위 ‘알곡성전’이라는 곳에서 이 설교를 여러분이 유일하게 듣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영적인 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또 그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세계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베풀어지는 시대에 사니까 저도 보여주심을 받은 거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매우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 이 지적해 주신 장소에서 놀다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귀중성을 크게 느낍니까? 만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듣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마귀가 오든, 천사가 오든, 제가 한 말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압니다. 저한테 들었으니까, ‘아, 나는 지금 음부로 가야 하는구나!’, ‘나는 지금 지성소로 가는구나!’ 하는 걸 다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실감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만 우리 알곡성전을 보시면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따르는 것뿐이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성전 지을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럴 힘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지시하셔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마포를 입게 되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를 입어야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Chapter 05.

세마포는 군복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서, 신의 세계를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믿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도 통달한다고 했지만, 신은 언제나 한계를 지키지, 인간에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신이고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신은 인간에게 정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으면 한갓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본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흙에서 취하였으즉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후 문제를 언제나 궁금하게 여기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중

교에 심취하여, 죽게 되면 이러저러한 곳으로 갈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종교를 바랍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오늘날 신의 세계를 어느 정도 아는 섭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대단히 활력이 넘쳐 있습니다. 숫자도 많아졌고, 믿는 분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가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예수 믿어라. 병이 낫는다.” 취직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취직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가 희생을 요구하는데, 현실은 이것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싫든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도록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배우고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인봉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인을 봉하는가? 비밀로 감춰 두는 겁니다. 그 비밀은 인을 뿔 자라야만 아는 것입니다. 인봉한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들인데, 그 인을 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인봉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자 이해를 못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봉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인을 뿔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실 때, “입을 봉하고, 너 혼자 알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안 될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피가 멈춥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 버립니다. 그런데 왜 생수를 바르면 그 뻣뻣하게 굳은 시신이 변하여 노글노글해지는가? 죽은 사람에게 가서 경의를 표하면 시신은 죽어 움직이지 못해도 그 혼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기원 장로가 교통사고로 이대병원에 입원하여 문병을 갔더니,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생명이 곧 끊어질 때가 돼서, 내가 이마를 만지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뭐라던가. 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말 안 듣고 먼저 가는가?” 부인되는 양반이 장 장로가 죽기 전에 날 찾았다고 해서 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생수가 연결되면 시신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은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생수는 눈엔 안 보여도 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핏니까? 주님의 핏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피가 돌지 않아 굳어 있는데, 생수를 바르니까, 우리 눈엔 안 보여도, 그 순간에 피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피가 아니면 시신을 부드럽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무서운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생수

의 성령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주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생명체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세워 주실 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가리라.” 그러니까 “너를 대하는 자가 나를 대하는 것이니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안 이뤄지면 여러분이 저한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 넓은 세상에 예수를 부르는 곳이 부지기수지만,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와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잘 믿고 못 믿고, 이래서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열심히 잘 믿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도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보아서 아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안찰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인 되는 분에게,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편안히 가게 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안찰을 하면서도 속으로, “그래도 우리 역사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지만, 섭리를 알고 세상을 떠나니 참 다행스럽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퇴직한 연세 많은 성회장님들은 다 과거 역사에도 동참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세마포를 입혀 드려야 되는데, 하고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시면서, “음부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동상에 많은 순례자들이 입을 맞추어 베드로의 발이 반질반질하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조급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알곡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과정을 저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그대로 되느냐? 바로 따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마당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갈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주의 종으로 믿고 열심히 따르고 계십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미 오신 분들은 연로하여 세대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든 사람들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공로의

대가를 받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나한테는 생명의 면류관밖에 남지 않았다.” (딤후4:8) 하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퇴직한 성회장님들은 나이는 들었을지라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역사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두 천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저도 주 앞에 체면이 섭니다.

오늘날까지, 세마포를 입을 사람들을 길러 내라는 주님의 당부를 받고 3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목표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람나무 역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소생한다는 것을 알려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리고, 성전에서는 알곡을 익게 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긴 세월을 저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영의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훌륭한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도록 길러 줘야 합니다.

정환택 장로님은 전도관에서 간사 일을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얼마 안 있다 죽을 텐데, 총회장님, 될 수 있으면 세마포를 입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 물론 저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맘에 걸리는 지난날의 몇 가지 범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고 말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의 세계에 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분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혹시 전도관에서 간사 일을 볼 적에 거리키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줬습니다.

1, 2년은 금방 흘러갑니다. 내년도에도 70세가 되어 퇴직할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가 성회장을 마무리할 때, 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생활하시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위엄 있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삽니다. 지금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복잡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나름대로 참 고맙게 주의 종을 따라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사이비 종교를 따라간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노력을 하시는데, 하루를 따라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전쟁은 지면 그만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지는 날에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때로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무척 애쓰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저런 사람이 이 시

대의 섭리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희열이 만만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 물어보면 입이 봉해집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을 모릅니다. 숫자가 수억이 되고, 수십억이 되어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만 이긴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섭리와 주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섭리를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너만 알라.” 하셨으니, 저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을 봉하게 하시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를 따르시면서 제가 누구라는 걸 아셨습니다. 육적으로는 참 제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인가를 아마 여러분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제가 성서의 이긴자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지금까지 이끌어 온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뭔가 있어서 그렇게 끌어오셨구나!’ 하는 것쯤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감람나무는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사람이 몇 안 되니, 초라하게 보입니다. 기성교회는 몇 부제 예배를 보는 판인데, 우리가 몇 사람 모아놓고 얘기해 봤자 그 사람들은 코웃음 칩니다. 더구나 앞선 역사가 그렇게 망한 판에, 또 뒤를 이어 역사한다니, 어떻

게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만큼이라도 주의 종을 믿고 따르도록 하늘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이견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되면 그만둬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드리는 일이다, 하고 생각되면 열심히 준행해야 합니다.

Chapter 06.

용에 대하여



전쟁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필요한 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가 없는 상대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쟁할 때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군대는 하루아침에 대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그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이 없는 무기를 갖다 쥐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공군은 비행기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수없이 전투훈련을 하고, 수없이 폭격도 해 보고, 또 보병들은 수없이 탄환을 쏘면서 사격 연습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몰래 원자폭탄을 발명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 낸 무기입니다. 그 직전에 독일의 히틀러라는 독재자는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또 스위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까지도 지배했습니다. 다음 차례가

어디냐?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독일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가면 영국도 비행기로 대적하여 공중전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고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국을 쳐부술 수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때 영국의 전쟁을 총지휘한 사람이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해군장관도 하고 수상을 지낸 사람인데, 히틀러와 맞붙은 것입니다. 히틀러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무기를 만드는 독일 과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에다 바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뭐냐? 로켓에 폭탄을 실어서 떨어뜨리면 영국 본토에서 막을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로켓에 폭탄을 실어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로켓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것입니다.

영국서는 독일 비행기가 날아오면 공중전으로 막고, 배가 들어오면 해군으로 막는데, 로켓에 의한 폭격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때 로켓을 발명한 사람이 폰 브라운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원자탄이라는 놀라운 무기를 생산해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그런 가공할 무기가 갑자기 드러나는 날에는 상대가 맥을 못 춥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바로 원자폭탄 두 방에 항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마련돼 있으면 항복을 안 합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전쟁에 관한 내용을 많이 목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을 부숴 버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저주가 지금까지 이어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족과 지금 이 시각까지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쟁이 오늘날까지도 사람을 중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나 일반 신도들이 오늘날까지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신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히는 신이 있다고 요한 계시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계12:10)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람된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는 뜻을 훼손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

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계13:1)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본 장면입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계13:2)

요한 계시록에는 주께 권세를 받는 두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자가 있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자는 짐승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자는 이긴자입니다. 이 짐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긴자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자가 지게 되면 하나님이 타격을 받는 거고, 짐승이 지게 되면 용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은밀히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두 존재들의 전쟁 양상을 주께서 극비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수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입니다. 그러면 용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에 많이 밝혀져 있는데, 용의 존재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 측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에 대하여는 윤곽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이라는 존재와 불가불 대결을 하는 장면이 요한 계

시록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 계시록은 읽어 봤자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끼리의 전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짐승이 참람된 말을 합니다.(계13:6) 여기 참람된 말은 용측의 내막입니다. 그럼 하나님 측에서는 이긴자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모르게끔 놔두느냐? 아닙니다. 이긴자에게 흰 돌을 줍니다.(계2:17) 그 흰 돌에 적힌 내용은 받은 자밖에는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의 비밀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짐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긴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뭐냐 이겁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의 비유인데,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이런 짐승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엄청난 적수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적수가 되느냐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용으로부터 전권을 맡은 짐승에게 누구든지 경배를 한다고 했습니다.(계13:8)

경배라는 것은 행복을 뜻합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다 짐승에게 경배할 정도니, 얼마나 권세가 강한 겁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도대체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42달 일할 권세를 행사한다는 겁니다.(계13:5) 그렇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42달 동안에 짐승에게 가장 시달림을 받는 인물이

누군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42달이라는 게 1,260일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는 두 감람 나무는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감람 나무가 42달 동안 짐승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계11:7) 그렇다면 용으로부터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존재하고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존재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두 감람나무 뿐입니다.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면 한마디로 사령관입니다. 혼자 덜렁 전쟁하러 나가는 사령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령관이면 군사를 거느립니다.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사령관이 하는 일입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맡은 짐승이 42달 동안 활동할 때에 소위 어둠의 세력을 다 장악합니다.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빛의 세력 쪽에 있는 인물들은 바로 어둠의 세력의 최고 우두머리인 짐승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짐승이 지면 용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 측에서도 권세를 맡은 자가 전쟁을 하다가 지는 날에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측에서 전권을 맡은 자가 나와서 전쟁을 하다가 지면, 전권을 맡겨 준 자도 자동적으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의 기독교는 어디로 갔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독교는 뭐며, 왜 요한 계시록만 자꾸 기독교의 원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1:1) 요한 계시록이 시작될 때에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1:1-3)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시작이 이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의, 주님 시대라든가, 사도 시대라든가, 그 이후 시대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하고 바로 요한에게 계시가 이루어지는 시대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를 주시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내용을 알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요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존 시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복음화 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적의 주님에 대하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알지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하늘 나라의 비밀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맡겨 주겠다는 인물이 이긴자로 나와 있습니다.(계3:21) 그런데 마귀 측에서도 용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맡겨 줄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계13:4) 조금 전에 그 존재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또 맡겨 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의 앞잡이가 됩니다. 짐승의 앞잡이를 성경에는 음녀라고 했습니다.(계17:1-3) 이 음녀는 마귀의 이름입니다. 음탕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이름이 음녀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라고 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음녀를 다스린다면 그쪽에는 셋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이긴자가 있으면 이쪽에도 셋입니다. 3단계로 대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맡은 자는 음녀가 아니고 짐승이라고 했으니, 그 42달의 고통을 겪는 게 두 감람나무라면, 짐승의 시대에 두 감람나무가 고통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건 천 년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두 감람나무가 활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은 누구냐? 짐승의 앞잡이 음녀입니다. 성경에는 음녀가 패하는 광경이 나옵니다.(계17:6, 16) 음녀가 패하면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쪽도 이긴자가 패하여 1,260일을 도망갔다가 다시 힘을 얻어 회복하게 됩니다.(계11:11, 12:14)

그 후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짐승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계 19:19) 그래서 짐승하고 어린 양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끼리의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저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빛입니다. 빛은 여호와, 어둠은 용, 여호와와 아드님이 예수님이라면 마귀의 아들 역할을 하는 존재가 짐승이고, 짐승의 앞잡이가 음녀라면, 그리스도의 앞잡이는 이긴자입니다.

이긴자가 어떠한 역사를 하려고 할 적에 가로막는 세력은 음녀인데,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것처럼 안 스며드는 곳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전쟁을 하면, 어둠의 세력이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은 음녀하고 싸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가 차게 되면 두 감람나무는 짐승과 싸우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계11:7, 13:7) 그리하여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다 비유입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

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상상이나 하느냐 이겁니다. 2천 년 동안 모르던 얘긴데.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Chapter 07.

생령에 대하여



요즘 과학이 발달하여, 성서의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적에 지금과 같이 지으셨느냐, 아니면 다윈이 얘기한 대로 진화가 돼서 변모를 했느냐, 이런 문제를 유전 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의 원생명체에 대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자는가? 왜 피곤을 느끼고 자는가!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저는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지만, 만약에 아담을 본다면 누구를 본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범죄하기 전의 아담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설교할 적

에, 흠으로 아담을 빗어서 생기를 넣으니 생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생령을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무엇이 생령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 있는 성서적인 증거를 여러분한테 입증시키면서, 이러한 상태를 생령이라고 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령의 생명체는 거의 신입니다. 그럼 이런 신은 잠을 자는가? 신이 잔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령이 된 아담은 과연 잠을 자는 조건을 지녔던 생명체였던가?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서 지내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가지고 아담의 배필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유전인자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뜻은 뭐냐, 잠들기 전의 생명체하고 잠들게 한 생명체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깊이 잠들게 하기 전의 아담이라는 존재는 잠을 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잠들게 한 아담의 생명체에 변화가 없었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잠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자야 하는 아담의 갈비뼈로 이루어진 생명체는 잠을 자야 하는 생명체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유전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캥거루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그 캥거루에게서 정말 조그마한 새끼가 태어납니다. 새끼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어딜 찾아가느냐? 그 캥거루의 어미가 갖고 있는 주머니를 찾아갑니다. 그 새끼가 뭘 알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유전인자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서 젖을 빨아 먹고 그 안에서 큼니다.

아담은 본래 잠을 안 자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때부터 생명체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둘이 지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생명체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와라는 생명체를 만들어서 둘이 서로 의지하고 지내게 한 생명체는 다릅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까맣게 모르는 얘깁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에덴성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말을 안 한 것입니다.

만약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지 않고 눈이 말뚱말뚱한 상태에서 하와를 만들었으면 하와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는 유전인자를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하는 유전인자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대로, 아담의 후손들은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조건을 타고 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처음에 내 형상을 따라 만든 대로 넌 그냥 지내라.” 이랬으면 잠을 안 자도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담을 잠들게 할 때에 아담의 내부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면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상태에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오늘날 나도 잠을 잡니다. 그래서 나는 하와 때문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농담 같지만,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즘도 우리 교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살아 있을 때보다 느낌이 더 정확합니다. 영으로 화해된 생명체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의 자기를 보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진짜 저게 나였나, 하고 말입니다.

곰뻥이가 매미가 되고, 잠자리의 애벌레가 잠자리가 됩니다. 저 땅속에 있는 곰뻥이가 매미가 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나비가 봄날이면 날아다니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만, 원래는 그 알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얘기로는 매미는 17년간 곰뻥이로 있다가 보름 살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곰뻥이하고 매미를 보면 비슷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육을 갖고 있던 우리가 영으로 화해져서 새 생명체가 된 다음에 우리 육을 보면, ‘내가 저랬었나!’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으로 화해된 다음엔 믿어지지 않습니다. 매미가, ‘내가 저런 곰뻥이였었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믿

어지겠습니까?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말대로, ‘내가 정말 저랬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체는 바로 그런 겁니다. 뭐, 백번 애길 해야 영이 되기 전에는 실감을 못할 겁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의 연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육으로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를 당해 세상을 떠나, 영으로 화하여 주님을 만나 계속해서 영의 생명체가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영의 새 생명체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의 생명체가 지성소로 간다, 음부로 간다, 이런 걸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Part 02.

보혜사 성령을 말한다



8. 하나님의 역사는 왜 순탄치 않은가? · 9.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1) ·
10.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2) · 11. 강 옆의 두 사람에게 대하여 · 12. 왜
여기서는 피어 가고 저기서는 썩어 가는가? · 13. 육체와 영체

Chapter 08.

하나님의 역사는 왜 순탄치 않은가?



성경 말씀, 요한 계시록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14: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하늘 군대의 숫자를 정해서 기록한 말씀은 요한 계시록뿐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 산에서 계시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4만 4천이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은 땅에서 구속을 얻은 자의 숫자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4만 4천이라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무엇을 하는 숫자며, 왜 만들어지는가를 기독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흰 돌에 적혀 있습니다. 이 흰 돌의 내용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계2:17) 왜? 전쟁에 필요한 기밀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에 대해 쓰여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사실과 먼 이야기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에덴성회를 이끌어 오면서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일반교회나 다른 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참작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반교회의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인격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섭리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옳고 남은 틀렸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모를 적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독교에서 천여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이 다 일리가 있으니까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섭리나 아니냐 하는 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요3:16)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에 한 돌을 둘 터인데, 이것을 깨달아 믿는 자는 형통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도리어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사8:14)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섭리가 없는 것만 못합니다. 누구나 거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하던 자들이 하루 아침에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몰라서 주님을 섭섭하게 해 드린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의 하나가 일반교회를 동정한 겁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주님이 일반교회를 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라.” 해서 보니까, 중간에 사단이 조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시받고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제가 30년 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알곡성전에 대해 보여주신 건 주의 일을 하는 도중에 알려주신 거고, 영적인 말씀들은 옛날에 많이 들려주시고, 때가 되면 밝혀라 해서 밝히는 것도 많

습니다.

제가 때로는 일반교회에 혼자 가서 문턱에서 있어 봤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때로는 케이블 TV 같은데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런 분이 이 시대의 섭리를 알았으면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될 텐데,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박 장로님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은 무조건 때려서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축대가 옮겨졌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섬기든, 마호메트를 믿든, 나쁜 짓을 하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내용적으로는 불교와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상대를 용서하라고, 불교는 기독교보다 한 500년 앞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알고 보니까 큰일 났다 이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라는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극입니다.

감람나무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직접 기독교인들을 상대하셨는데, 감람나무 역사가 나타나자 주님은 손을 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람나무 역사만 관계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무렵에, 주님이 저한테 설명을 주시기를, “이 시대에 나에게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숫자가 9만 명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시작해라.” 하신 것입니다. 그 9만 명이라

는 숫자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여 사이비요, 이단으로 보는 앞선 역사에서 은혜 받은 숫자입니다.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상대로 움직일 적에, 저한테 들어오는 빗발치는 핍박이나 화살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역대에 저처럼 짓밟힌 종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감람나무 역사를 이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삽니다.

요즘에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면 상상하지 못할 악한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가만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목표를 세워 싸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뭐냐?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그 숫자를 채워 달라.” 이겁니다. 다른 시대의 종들은 각자 다른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14만 4천이라는 수를, 한 생명이라도 좋으니까 길러 달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14만 4천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도 기독교 2천 년 동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라는 등,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 한 구절을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논합니다. 그것을 신학 공부도 안 한 제

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위에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시온 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숫자를 세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상 중에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 시대 사람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너는 한 생명이라도 좋으니 그런 사람을 길러 내라.”는 것은 몇 만 명 중에 남은 숫자를 채우라는 겁니까? 14만 4천 명 중에 남은 숫자들을 채워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재료가 없는 안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게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재료를 가지고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모세야, 너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라! 웃은 이렇게 지어 입혀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중에 흉패는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흉패를 가진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마포를 입은 대제사장은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할 사람이다 이겁니다. 14만 4천인밖에는 어떤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진한다고 해서 부르는 노래를 군가라고 합니다. 그건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감미롭고 부드러운 노래가 아닙니다. ‘동백아가씨’ 같은 애절한 노래를 군대가 부르지 않습니다. 군대의 노래는 전쟁할 때 씩씩하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인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은 특수한 노래입니다. 그것은 군가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는 하늘의 군복입니다.(계19:14) 대제사장이 각종 보석을 가슴에다 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석은 각종 빛으로 반사가 됩니다. 광채가 납니다. 금패를 단 이마에서도 광채가 납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의 몸에서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는 빛을 발산합니다. 적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광채를 발하지 않으면 어둠을 못 이깁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유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큼은 빛을 발산하니까 어둠이 못 이기는 것입니다.

Chapter 09.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1)



영의 문제는 영이 되기 전에는 구분 지을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지만, 신령한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호와와의 깊은 사정까지도 통달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전2:10)고 했습니다. 그 영이 와서 움직이는 것을 육체적으로 느끼는 가운데, 영은 바로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조화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요16:13) 인간이 육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영의 문제를 육체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나 전기는 만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테나를 잡으면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육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인간과 함께할 수 있게 하려면 사람과 신이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이 느끼는 감각적인 것을 신이 느끼려면 우리 육체를 통합합니다. 한편 우리가 신의 세계에 대해 느끼려면 우리 육체가 신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신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신이 인간을 통하면 인간과 같은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하고 인간의 육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이라는 생명체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생존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먹는 과일을 ‘생명과일’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과일은 오늘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먹는 과일과는 다릅니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과, 배 이런 종류와는 다른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과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

일이라 해서 선악과라고 부른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문학이 발달하여, 천지창조라는 과정에서 주신 설명이 태양계에 국한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는 태양계 안에 속해 있는 조그만 하나의 혹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보면 엄청나게 커도, 우주 안에서 지구는 하나의 동산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천지를 다스리는 인간을 지으실 적에 그 배경이 되는 영역은 우주입니다. 이 지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기 전에 천지에 관한 얘기를 해 봤자 못 알아듣고,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영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인간이 사는 세계로 설명한 것이 천지창조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큼니다. 태양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다스립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였습니다. 아담은 생명입니다. 그러한 생명체는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우주를 다스립니까? 지구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

은 인간의 세계로 떨어졌는데, 이곳이 지구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주의 종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조금씩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말 못 합니다. 말하게 되면 논란이 생기니까.

몇 년 전에 운석이 달에 가서 부딪히는 바람에 달이 또 곰보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대기권이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무사하지만, 달에는 운석이 떨어져 웅덩이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지구 바깥에 나갔던 콜롬비아호가 대기를 돌파하다가 타서 비행사들이 죽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콜롬비아호는 여러 번 지구 바깥을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콜롬비아호와 같은 여객기를 지금 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뜨면 고도 8,000m에서 계속 태평양을 횡단하여 12시간 만에 LA로 갑니다. 앞으로 콜롬비아호 같은 비행기가 만들어져 로켓을 발사해서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가면 2시간 안에 갑니다.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도 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아침 먹고, 미국에 가서 점심을 먹는 시대가 옵니다. 이번에 콜롬비아호가 궤도 바깥에 나가서 지구 궤도를 돌다가 우주인들을 싣고 돌아 왔습니다. 지구 궤도를 돌파할 때 온도가 2,700도에서 3,000도로 올라갑니다. 용광로 온도가 보통 2,300도, 2,400도입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보다 온도가 더 높습니다.

지구의 궤도는 공기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곳을 돌파할 때 마찰이 대단합니다. 그때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차단시키는 자재로 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3,000도가 돼도 사람이 있는 그 안에는 열이 전달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콜롬비아호인데, 한 번 갔다가 다시 로켓으로 돌아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주 왕복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궤도에는 공기라는 보호막이 감싸고 있는데, 달에는 그게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운석들이 와서 박치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구는 공기가 있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구를 놓고 우주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조물주의 오묘한 솜씨를 느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우주관을 얘기하면 오묘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오묘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납득이 가는 말씀이라야 믿어지고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알아듣기 쉽게 기록한 겁니다.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석가보다 500년 뒤에 나온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신들 중에는 굉장히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 신이 행세하고 있을 때 여호와라는 신은 인간이 사는 이 지구상에는 명함도 내놓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내세워 가지고 그 후손들을 통해 여

호와라는 이름을 정착시켰던 겁니다. 그 후 예수님이 나오셔서 기독교가 번져 나갔습니다. 오늘날 알곡성전 하나 덩그러니 짓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신의 세계는 사실상 내용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령이 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령이 된 아담이라는 생명체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체로 지으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의 세계가 진화가 되어 오늘날 인간의 활동 무대가 된 겁니다.

아담, 하와는 지구에서 거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여호와의 신이 인간들과 교류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의 인류는 원시인들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인간의 조상으로서 아기를 낳아 아벨과 가인을 합쳐서 네 식구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적에,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하고 그냥 일반인이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다른 보혜사가 역사할 때 그 다른 보혜사를 받은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보혜사가 뭔지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보혜사에 대해 압니까? 같은 시대에 살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생명과일은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또 하나의 과일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먹고 사는 과일과 먹으면 죽는 과일이 같이 있다면, 아담이라는 존재는 시작부터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생이라면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속성하고 이와 반대되는 속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인류가 시작되는 시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사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의 근본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그 세계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최고로 방해하는 속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모르면 선악과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할 때, 왜 죽는가를 의사가 알아야 병을 고칩니다. 왜 죽는가를 모르면 의사가 못 고칩니다. 그러나 약이 있다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생명을 죽는 원인을 모르고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하는 생명체를 살리려면 왜 죽게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지만, 저 과일을 먹으면 죽어, 하고 말씀했다면 죽는 원인을 여호와께서 모르십니까? 이렇게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는 작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하는 인간을 다시 살리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써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요6:54) 선악과를 먹고 저주 아래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를 지닌 주의 종이 설교를 한다, 이슬이 온다, 안찰을 한다, 여러분에게 이슬이 내린다, 이게 모두 여러분에게 주의 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같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롬8:9) 하나님을 부르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던 사람이 죽으면 뺏뺏이 굳어 갑니다. 주님의 은혜하곤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같이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도 다른 영이 지배하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이긴자를 통해서 양떼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계11:6) 그 결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너를 거치지 않으면 내게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은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알곡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0억 인구 중에 이슬이 오고, 향취가 진동하는 곳이 이곳뿐이고, 설교하는 이 말씀도 저 혼자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만 교역자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 논할 생각도 못 합니다. 관련이 없으니까. 저는 그걸 알려야 하는 사람이니까 가르쳐 주셔서 설명하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저주 아래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안찰을 받으면, 이긴자를 통해서 주의 피를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로, 죽어가는 생명체를 마지막 날에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합니다. 그 요인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을 이긴자한테 맡기신 것입니다.(계21:6-7)

오늘날 어디에만 무슨 은혜가 있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온 사람은 다행이고, 안 온 사람은 일반교회 나가다

가 죽으면 푹푹 썩어 갑니다. 에덴성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도 피어 가는데, 일반교회에서는 열심히 믿던 사람은 죽으면 푹푹 썩어 가고, 숯덩이처럼 검게 변해 갑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하늘로써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요6:51)고 가르치시고,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은 내 살과 내 피니라.” 하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느냐 해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 너를 대하는 자는 나를 대하는 것이고, 너를 만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니라. 다시는 너에게 어둠이 깃들지 못 하느니라.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저를 만나 생수를 받고 안찰 받는 분들은 시신이 아름답게 피어 가지만, 저를 만나지 못한 기독교 신자들은 남들이 거룩하다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썩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썩히는 신이 역사하고, 여긴 피게 하는 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저를 ‘이단이다. 사이비다.’ 해도, 내용을 아는 여러분은 저를 따르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른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종이 안찰하는 길로 보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주의 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긴자가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긴자를 만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계21:6-7)

주님이 직접 못 주십니다. 주님이 직접 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수만 명이 몇 부제로 예배를 보는 그곳에 주셔야 합니다. 사람도 몇 안 되는데, 왜 이곳에만 주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지. 무엇 때문에 따로 저한테 지시하십니까? 목자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지구상에는 훌륭한 목자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동그란 모자 쓰고 열심히 목회합니다. 지팡이 같은 거 짚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뭘 주고, 받아먹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떠다 놓으신 물통에 제가 ‘쉬익’ 하고 기운을 불면 물이 생명수로 변해서, 송장에게 바르면 변하는데, 제가 직접 여러분의 눈에 손을 대면, 여러분 눈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만드시 다시 살리리라.” 그 생명의 은총이 과거에 앞선 감람나무 역사에서 있었고, 현재 이어져 가는 우리 역사에서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hapter 10.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2)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기독교에서는 막연하게, 사람이 죽으면, 지금 부른 찬송대로, 봄과 같이 늘 사시 청춘인 그런 세계가 낙원이요,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살아 있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선과 악은 어느 관점에서 비롯되는가? 기독교가 보는 선악과 다른 종교가 보는 선악은 같지 않습니다. 왜 신끼리는 서로가 경계하고, 상대를 적으로 보고, 또 악으로 간주하는가? 악과 선의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을 악으로 봅니다. 빛의 세력은 어둠을 악으로 단정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

는 사람들의 선과 악이 따로 있고,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흔히들 법률에 둡니다.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악인이다,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선인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인간을 위주로 만든 법이지, 신을 위주로 만들어진 법은 아닙니다.

빛의 신은 빛의 신대로의 법이 있고, 어둠의 신은 어둠의 신대로 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어둠의 세력에게는 먹어도 되는 과일이고, 빛의 신에게는 먹으면 죽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헤아리기는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세계에서 ‘이것은 괜찮다’ 하면 선이 될 것이고, ‘이것은 안 된다’ 하면 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괜찮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성서에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적하는 세력임을 암암리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먹게 되면 너는 죽는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임의로 먹어도 너는 안 죽는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주장하는 쪽이 하

하나님이라면, “아니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네 눈도 밝아져서 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돼. 절대 안 죽어.” 하는 것은 적의 세력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옛새 동안에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새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시간관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에 기록된 내용을 믿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로서 그 구절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겨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게 시초입니다. 즉,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언약한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긴자입니다. “이기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계2:26)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언약한 인물은 이긴자 외에는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아담이나 “내 일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존재나 그 권세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범죄하기 전의 아담이나 이긴자라는 존재가 맞는 권세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서를 보고 또 연구하시지만,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조물주는 아닐지라도, 만물을 다스리는 인물입니다. 일반 천사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천사들은 시중드는 존재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서에 기록된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실패하여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기 보면 이긴자가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게 되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을 짓기 전에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이걸 다스리는 인물을 내세우신 것과, 앞으로 이긴자라는 존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고 계획한 내용이 상통합니다. 아담, 하와가 지으심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고, 이긴자가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아담, 하와가 지으심을 받으면 그 계획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 이긴자가 나오면 이전에 계획한 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 또 다른 존재가 아담, 하와 같이 만국을 다스리려면 그의 형상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긴자가 되려면 영적인 차원에서 누구의 존재와 같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같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내쫓았습니다.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겁니다.(계2:7) 이렇게 되면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옛 아담, 하와가 무엇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죽게 된 존재가 생명과일을 따먹을까 봐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한다고 했으니, 옛 저주가 그대로 있습니까, 풀렸습니까?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긴자는 온 인류 가운데 그 언약을 받은 유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탈바꿈이 된 존재인데, 그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쫓은 존재의 상태 그대로라면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합니까? 안 합니다.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언약하실 때에는 죄짓기 전의 아

답, 하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과일을 받는 자는 옛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존재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계21:6-7) 생수는 영생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그는 그로 인하여 영생할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생수는 바로 주의 보혈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나눠 주고 부어 주는 존재는 범죄하기 전의 아담과 같은 형상을 입은 자라야 합니다. 그 생수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건 주의 보혈을 맡겨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슬로, 향취로, 생수로 임하는 것이 주의 피입니다.

그 생수를 주는 당사자가 이긴자입니다. 이긴자는 생명수 샘물을 맡은 자입니다. 그 자를 만나지 않으면 생수를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아담이나, 앞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이긴자나 상통하는 겁니다.

Chapter 11.

강 옆의 두 사람에 대하여



다니엘서 12장 4절을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단12:4-6)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다니엘이 듣고 이상 중에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즉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 역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고 질문했습니다.

다니엘은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단12:7)

이 강물 위에 서 있는 세마포를 입은 존재는 끝을 모릅니까?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강에는 증거하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강가에는 질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한 자가 답변을 받아 내었으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입이 아니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얘기가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설교 중에 위대한 말씀이 많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깊은 내용을 주님도 설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주님이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드려서 답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걸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계셨을 적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위주로 믿는 기독교와 주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견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사이비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춥던 만나와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계2:17, 3:12 참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 체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의 증거는 바로 그거입니다. 흰 돌의 비밀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긴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 좌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다니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긴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5)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서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비판을 하고 아주 작살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까지도 때로는 나를 꺾 씹듯 입술을 놀려 작살을 냅니다. 그래도 그게 안 깨집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와 경륜은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 배

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주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7:38-39)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생수의 은혜는 앞선 역사하고 저를 통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감람나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맡을 때 통탄한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여러분! 한 발짝만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참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잖습니까?

“나의 두 증거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는 온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 (계11:3-4) 주님이 바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2천 년 동안 감춰져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앞선 역사에서 두 감람나무를 증거하고 큰 은혜를 부어 주면서 수많은 기성교인들을 모아서 일단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적에 이슬과 향취를 내리는 자는 감람나무다 해서, 감람나무를 주장하니, 기성교회가 이단으로 몰아 박태선 장로를 추방하고 잘라 버리는 바람에 다 떨어지고, 80명을 가지고 전도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인 게 전도관 식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 역사는 이 시대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주의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

도 아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은혜는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앞선 역사의 엄청난 세력이 나를 핍박할 때, 나는 “고래와 새우가 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우가 고래를 쓰러뜨리는 것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보게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량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고래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누워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말도 못하게 당했잖습니까? 지금 앞선 역사가 완전히 죽사발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일으키는 사명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뺏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니 따질 것을 다 따집니다. 이걸 헤쳐 나가면서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지지했던들, 누가 나를 핍박하겠느냐?”(갈5:11)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이렇게 됐다.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을 누가 와서 깨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여태까지 당한 게 헛된 고난이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와서 율법을 따지느냐?” 이렇게 말한 게 그겁니다.

“여태까지 고난을 헛되게 받았느냐?”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

이다, 사이비다 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일이 순조롭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악령과 싸우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나 믿고, 병이나 고치고, ‘할렐루야’ 해서 끝난다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제가 그렇게 예수를 전파했으면 지금쯤 대한민국에 최대의 종교단체를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그 재료를 주시기 위해 이긴자가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나오면 전하는 자가 자의로 말하질 않습니다.(요 16:13)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보고 설교합니다. 제가 자의로 말한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처럼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저는 언제나 성경 덮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의로 말합니까? 성령의 조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단에만 서면 물 쏟듯 쏟아 놓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것만 봐도 그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전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물적 증거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정말 적은 인원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분명한 주인공이다.’ 하고 믿음이 갈 때에는 그 나머지 일은 저한테 맡

겨 주셔야 합니다. 그 나머지까지도 ‘왜 이래?’, ‘왜 저래?’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제가 일을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손해 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둔한 사람입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세상에서 출세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차단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알곡성전에 설계사가 설계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제가 설계한 겁니다. 그러나 난 건축사도 아니고, 설계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여주신 대로 한 것입니다.

Chapter 12.

왜 여기서는 피어 가고 저기서는 썩어 가는가?



우리가 영을 알기 전에는 신앙의 본질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신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면 신과 호흡을 같이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엇갈리면 헛된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오리라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많은 왕들이 배출됐습니다. 열왕들 가운데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불영광을 돌린 왕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열왕들과 또한 그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들 사이에,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끼리 비참하게 싸우는 장면들도 엿보이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의 결론은 영생이요, 또 구원의 원리이며, 이를 이루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요긴한 돌을 둔다고 했습니다.(사28:16) 비유로 한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돌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요긴한 돌을 하나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긴한 돌을 깨닫는 사람은 형통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 돌이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돌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돌이라는 명칭을 갖고 움직이게 만드시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이 돌의 역할을 할 것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부터 예정을 해 놓은 뜻이 계셨습니다.(단2:34-35, 속3:9) 그리하여 주님은 그 뜻에 따라 돌의 역할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말을 이사야가 한 겁니다.(사8:14)

그러면 이사야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돌의 역할을 하는 이유를 알았느냐?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상 중에 듣고 예언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돌의 역할을 하시는지 그 이유는 모르고 기록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20:18) 그럼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비유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 돌에 일곱 눈이 박히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속3:9) 다니엘은 돌이 우상을 부순다고 설명했습니다.(단2:34-35)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역대 하나님의 종들은 아느냐? 모릅니다. 스가랴 자신도 모르고, 다니엘 자신도 모릅니다. 또 돌을 시온에 둔다고 예언한 이사야도 모릅니다.

“이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요5:39) 하고 주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이 메시지를 내가 이루려고 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상고하는 영생의 조건들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해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모르는데, 하늘나라의 섭리를 얘기한들 너희가 알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깨달을 때가 온다.”(요14:26)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오셨으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하나하나를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아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를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장장 2천 년 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를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목표를 완성시키기 위해 있었던 구약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요19:30)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구약 성경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과 율법은 나의 길 예비자 세레 요한 때로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폭탄선언을 하십니다.(눅16:16)

여태까지는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을 지켰는데,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것은 “내 길 예비자 세레 요한 때로 다 끝난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천국에 가는 목표가, “누구든지 내 시대부터는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뺏는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족속이다, 어떤 지파다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건 백지화시켜 버립니다. 그 이후에 되는 일들은 그 이후에 일해야 할 선지자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형제가 죽었다,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어느 신에게 속했느냐에 따라 그 영을 데려가는 곳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일평생 뭘 했는데’ 이걸 안 통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중이 기독교 집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린다고 해도 중을 존경하는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적입니다. 중도

목탁을 두드리고 시주하려고 갔다가,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냥 갑니다. 이것은 섬기는 신끼리의 섞일 수 없는 선이 구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악령은 죽은 사람의 영을 데려갈 때 물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여건에서 사람의 영을 데려갈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여건에서 사람의 영을 데려갈 수 있느냐? 여기에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 있는 여건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마귀가 데려갈 수 있는 여건이면 마귀가 데려갑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몰랐다가 오늘날 우리 역사를 만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평생을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사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제단도 잘 나오지 않던 우리 에덴의 어떤 식구가 죽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목사가 천당에 가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모르는데 따라서, 한쪽은 복을 받고, 한쪽은 복을 못 받게 됩니다.

시온에 둔 돌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에는 그 돌이 도리어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적에 그를 만난 사람은 복이 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를 아는 분들에게는 복이지만,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역사가 없는 것만 못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썩어 가고,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은총을 입어서 시신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 경우에 아름답게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이고, 썩어 가는 축은 어둠의 세력 쪽이라는 것은 불변의 원리입니다.

선지자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화사하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표가 나는데, 오늘날 현대 과학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변화시키느냐? 못 시킵니다. 단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썩지 않게 방부제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가 한동안 썩지 않게 보호할 수는 있어도, 시체를 아름답게 변하게는 못 합니다. 한 번 굳은 시신은 톱으로 자르기 전에는 구부러져 펴 수가 없는데, 생수를 바르면 굳어 있던 시체가 퍼진다면, 이건 의학이나 과학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의 역사를 알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속하는 사람은 시신이 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속4:6)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된다면 일반교회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소리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죽을 무렵에 어떻게 마귀가 오냐 이겁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제일 싫어했던 마귀가 오니 죽는 순간에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죽어서 시체가 세 시간만 있으면 장작개비로 변합니다.

요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와서 그렇습니다. “총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난 그가 죽은 줄 몰랐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압니까? 보고를 받았기에 압니다. 그가 몰래 생수를 가지고 갔는데, 집안이 안 믿으니까 화장을 하려고 냉동실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맏딸이니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좀 제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에게 사정을 하여 시신의 얼굴과 몸에 생수를 발랐더니 변하더라 이겁니다. 생수의 능력으로 변화가 온 겁니다. 신끼리의 싸움에서 한쪽이 상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시신을 변화시키려면 생수를 바르고도 30분 이상 찬송을 불러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면 아름답게 변했던 시체가 시커멓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애써 다시 찬송을 불러야 다시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이걸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 역사를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10배나 강한 생수를 주신다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혼자 생수를 발라도 변합니다. 누가 죽게 되면 세 시간쯤 지나서

먼저 시체를 보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바른 다음에 다시 보라 이겁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로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인격자들도 죽으면 그냥 뿔뿔하게 굳어서 톱으로 자르기 전에는 안 퍼지게 돼 있지만, 그걸 손 하나 대지 않고 생수를 발라 놓으면 노글노글해져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아무리 떠들어야 섭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이다 뭐다 하고 저에 대해 말이 많다가도 시체가 변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신의 역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신의 역사를 아니까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면 보십시오. 주의 종이 축복한 물을 바르면 시신이 변하는데, 여러분이 제 발로 와서 나한테 안찰을 받으면 그 효과는 생수를 시신에게 바른 것의 몇 배의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찰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저야 심부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 손길이 닿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알고 보면 이 섭리가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 이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라는 말도 나옵니다. 모두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하고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다음에 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가 만들어집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힐 때 모든 죄악을 하루에 소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속3:9)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계2:17) 돌은 주님입니다. 돌을 맡긴다는 건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자와 방불한 존재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계21:7)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 역사를 하기 전에, “너는 이제부터 나를 부를 때 여호와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노라고 대답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억지로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연구를 안 해서 내용을 모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몇 만 명, 몇 십만 명 모아 놓고 설교를 하는 분들인데. 매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설교 제목이 먼저 나갑니다.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 것을 가지고 전하리라. 그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리라.” 누구의 것을 보고 듣는 겁니까? 주님의 것을 보고 들어 전합니다. 그러므로 30년 동안 제가 성경도 안 보고, 준비도 없이, 단에만 서면 말씀을 쏟아 놓는 이유가 다른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전에 조은주 양이라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아버님이 앞으

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해서, “모시고 와라.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봐서 축복이나 좀 해 드리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겠지만, 안찰도 받고, 축복도 몇 번 받다가 쇠약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경찰인데, 경감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의 딸인 오윤민 양이 찾아왔습니다.

“총회장님.”

“왜?”

“저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입니다. 제가 의사니까 알지만, 폐암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고통만 없이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폐암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그래 술, 담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모양이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제단에 나오시게 해라. 이왕 돌아가실 거니까.”

그래서 안찰도 몇 번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일 때문에 갔다 오는 동안에 한 주일 빠졌는데, 돌아왔을 때 날 만나서 하는 말이, “총회장님이 계셔서 안찰 받을 때에는 덜 했는데, 안 계시니까 더 불안하고…”

“맘 편히 가지시라고 해. 그리고 더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몸이 이렇게 쇠약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해.”

그 후 돌아가셨다는데, 아주 고통 없이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세상을 떠나면 생수를 무조건 바르지 마십시오. 먼저 돌아가신 분을 자세히 살펴보신 다음에 생수를 바르고, 자세히 보십시오.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그 변하는 자체가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애깁니다. 그냥 시체가 변했다면 그건 별거 아닙니다. 왜 변하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수천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오늘날 시체가 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압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내용을 일반교회 지도자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섭리를 알아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현황을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은 성서를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고 설교할 망정, 그 이면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건 인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종이 안찰을 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에는 세상의 부정한 여건이 꼭 차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과 여러분의 여건은 상극이기 때문에 부딪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기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고압선이 부딪치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쇠도 녹입니다. 3,000도씩 열이 납니다. 전기용접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속 안찰을 받으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부딪힘이 덜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과 영이 부딪치니까 잠깐 손을 댔는데도 눈알이 뒤로 빠지는 것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눈만 아프냐?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르게 탄 신이 들어가 있으면 의자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영을 모르는 분들은, 상해를 입혔다, 어쨌다, 사이버교주가 뭐 눈을 쭈셔 가지고 먹물이 터졌다, 이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안찰하다가 빨리 손을 땡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에게 안찰을 할 때에는 매우 조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만날 안찰하니까 괜찮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 편이니까. 그러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 편이 아니라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처음 안찰 받는 분들에게, 어디서 오셨나, 누가 모시고 오셨나,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믿지 않는 분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생수를 바르면 여러분을 봐서 상대방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Chapter 13.

육체와 영체



죽음에 대해 종교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 화장을 할 때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훌륭한 스님의 뼈에서 찬란한 사리가 나와 보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에도 영롱한 빛을 발하도록 보존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심으로 정신 통일을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신의 조화냐 하는 겁니다.

조개에서 진주가 나옵니다. 그 진주는 영롱한 색채를 띠어 여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으로 쓰입니다. 그런 미물 같은 바다의 조개 속에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안에서도 그런 영롱한 하나의 진주알이 만들어지는 것이 곧 사리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인간이 정신력

을 집중하는 데 따라서 그 내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부에서 만 들어지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한테 나오지 않는 사리가 도를 닦는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것은 정신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체에 변화가 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적인 것도 실질적인 변화가 무쌍한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체가 이루어지려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열 달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완성되기 전에 죽었다면 그 영은 어떻게 되느냐?

온전치 못한 곳에는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만 영이 있지,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생명체는 있되 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혼은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혼은 10개월 동안에 육체적으로 완성된 생명체가 이루어질 때 담겨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생명체에는 혼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생명체가 이루어졌을 때 혼이 담겨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 달이 되는 생명체 안에 혼이 담겨지는 것이 신의 섭리인 것처럼, 인간의 죽음도 우리가 볼 때 죽음이지,

사실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육체로 태어나지만, 죽음으로써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즉, 썩지 않는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는 생명체를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자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하늘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하늘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느냐? 주님이 행하는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니고데모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 거듭나다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라는 얘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하고 재차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지듯이 또 하나의 생명체가 성령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뭘니까?” 또 물었습니다. 아까는 거듭나야 된단니까 거듭나는 게 뭘니까 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이제는 또 성령이 뭘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냅니다. 그 생명체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새 생명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무슨 생명체가 됩니까? 악령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요14:6)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 ‘나로 말미암아 간다.’는 ‘길’이 뭐냐, 그것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거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체기 때문에.”(요6:51)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주께서 저를 택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먼저 피의 작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을 우리 인간에게 연결시켜 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체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대에 주님의 생명체를 연결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는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나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우신 종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

습니다.

그럼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만 된다고 하니깐 ‘사이비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받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또 주님이 저에게, “너를 대하는 자가 나를 대하는 것이다.” 그게 섭리입니다.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섭리 속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자기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시면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뭘 압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딴 데 가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듣지조차 못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들을 수 있어도, 제가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는 못 듣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저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날 만나는 자가 내 아버지를 만나는 거다.”(마11:27) 하신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빌립아, 날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줄 왜 모르느냐?”

(요14:9)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종을 따르실 때에 주의 종이 여러분을 하늘 군병으로 길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월급 줘서 제가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삽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제가 할 일을 지시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고 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움직이고, 여러분이 없어서 제가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를 따르실 적에는,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긴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지만, 그건 여러분이 자기 나름대로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의 슬하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드리면 여러분이 사는 거고, 혼자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외면하면 하나

님의 은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찰을 왜 받으십니까? 제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생수가 가지 않습니다. 죄가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 여러분이 깊이 아느냐?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깊이 모르니까 의심이 생기고, 부딪히고, 육적인 판단이 앞서는 것입니다. 육적인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는 맞지만, 이긴자의 위치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죽이고 살리는 사람인데, 그 나머지가 뭐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지나 가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이곳이 아니고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면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곳들은 몇 부제씩 예배 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서 최고로 잘 믿는 분들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식구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주의 종이 생수 축복을 하면서 “제 슬하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을 올리면 하늘에서 다 아십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의 숙명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저라고 뭐 뽐족한 수 있습니까?

천만다행인 것은,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오늘날 그래도 이긴자의 역사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맡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입니다. 만난 것도 반가운데, 맡은 저의 감회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기왕 만난 것, 결실을 얻도록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구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합당치 않은 것은 다 빼 버리십시오.

이긴자라고 해도 눈을 뜨면 현실입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입니다. 그야말로 쓰러져 죽는 순간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사명이 그러니 하는 수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일종의 숙명입니다.

우리처럼 힘든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악령과 성령의 투쟁은 치열합니다. 우리 눈엔 안 보여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력을 철저하게 봉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봅니다. 우리는 알곡성전에서는 보름에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깊이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일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럴만한 재료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아

무리 주의 종이 씻겨 줘도. 보름에 한 번씩 보는 새벽 예배 정도는, 주의 종이 서는 단이니까 나와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제대로 듣질 않고, 알지 못하고, 가뭄에 콩 나듯 제단에 한 번 빠죽 나오는 사람이 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고도 그로기 상태가 돼 버립니다. 체계가 서지 않았으니까.

영의 세계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악령은 엄청 강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라고 이겨 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평생을 신령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뿌리치지 못합니다. 인간은 마귀 새끼 한 마리도 이기질 못합니다. 그것이 신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하찮은 것 때문에 아옹다옹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성회장님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 많은데, 몇 년 안에 철저히 마음의 준비들 하십시오. 그래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Part 03.

진리의 오솔길에서



14.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에 대하여 · 15. 하나님을 찬양하라 · 16. 섭리 안에서 · 17. 하늘에서의 전쟁 · 18. 신과 신의 대결 양상 · 19.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하여 · 20. 여호수아와 돌

Chapter 14.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에 대하여



요한 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과거의 일을 알려주는 것, 현재의 것을 보여주는 것, 또 미래의 것을 예언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대의 선지자들이 감당할 일이고, 과거의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당시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 돼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계22:13)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처음이 끝나고 끝이 처음과 같은 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뭔가 알 것 같은데, 한참 지나다 보면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서를 연구하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양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질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데, 왜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겁니다. 기독교가 생긴 지 벌써 2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자들이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신자들이 무척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학자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떼들에게 존경을 받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시는 아들을 보고만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저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다만 구세주로서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저주받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얼마

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저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보여주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해도 주님을 믿는 분들은 천만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고로 비참하게 짓밟힌 것이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주님이 전개하는 역사의 핵이 바로 감람나무 역사인데, 현실적으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주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불고 난립니다. 참 안타까운 애굽니다.

이 시간에 여기 오신 여러분까지도 주의 종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세상 줄과 신앙 줄이 그겁니다. 신앙에 매력이 있으면 따르고, 매력이 없으면 세상 줄을 잡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육에 매여 살고, 영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못 보는 것을 주의 종이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섭리 밖에 계신 분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훌륭한 신학자들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린 대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맡겨 주겠다.”(계2:26-27)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철장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적을 질그릇 깨뜨리듯 한다는 겁니다. 적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질그릇 깨뜨리듯 하는 무기를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무기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시2:9)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권세를 이긴 자에게 맡겨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만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무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로 이기는 겁니다.

어둠과 빛의 대결에서도 상대가 어떠한 무기를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무기를 가지고 나와야 이기는 거지, 상대는 권총을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막대기로 맞서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가 권총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따발총을 가지고 가야 이기는 거고, 마귀가 따발총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그야말로 미사일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한 이유를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철장입니다. 이 건 비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무기가 철장이요, 그 철장을 하나님이 주님한테 맡겨 주신 겁니다. 이 무기를 마귀에게 사용하면 마귀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이 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는데, 바로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맡겨 주겠다 이겁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작살내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노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등등 한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선 역사에서 그 무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했던 무기가 어둠의 세력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때는 그 무기를 가지고 계속 써야 합니까, 다른 무기를 써야 합니까? 다른 무기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상상하지 못하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을 해야 저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감춰진 비밀이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일곱 우뢰가 발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가 모르게 감추는 비밀이입니까? 마귀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교회에서 열심히 믿던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셔도 시신이 아름답지 않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왜 누구나 주의 종이 입김을 부어 넣은 생수를 바르면 시신이 변하는가,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무기의 조화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게 무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공짜로 받고 있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주어 마귀를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권한을 주님이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시2:8)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 드린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저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니까 그냥 설교해도 되겠지만, 그럼 누가 날 믿어 줍니까? 내가 이끌어 가는 역사를 만날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욕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행동반경에 대해 윤곽을 짜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그 윤곽대로 사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감람나무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람나무의 행동반경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철장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은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이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곧 주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긴자의 역할이 깨질 땐 주의 역할이 깨지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에서 주님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코너에 몰리셨던 것입니다. 그걸 제가 역으로 돌리려면 가로막는 상대가 있으므로 극비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철장은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겁니다.

영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전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등장하고 신끼리 싸우는 전쟁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악령들이 자기편을 다 집합시킵니

다.(계16:14)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상 못하는 말썽을 듣고, 또 상상 못하는 은총을 입고 계십니다. 제가 앞선 역사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성남에 있던 박금목 집사 딸 둘이 한꺼번에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나, 내가 면회 온 사람에게 축복한 생수를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바르니까 시신이 변했습니다. “야, 폼다!” 그러니까 조금 흔들렸던 사람들이, “좀 더 있어 봐야겠구나.” 한 겁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끝난 줄 알고, 어떻게 해 먹을 수 없나, 하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따르는 것들이 저렇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해 주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목요일이면 옥중에서 생수 축복을 했습니다.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하나님, 지금 곳곳에 우리 양떼들이 생수를 받기 위해서 물을 떠 놓고 있을 겁니다. 축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썩아 소리가 나며 생수가 저를 거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안찰을 할 때는 평상시의 저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대면 위에서 은혜가 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연결됩니다. 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움직일 때 초점이 하늘과 맞아서 여러분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 년 내내 철야 기도 해도 소멸이 안 되는 죄가 불과 3, 4초 안에 녹아 나갑니다. 힘으로나 능으로 안 되고, 누구의 신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속4:6) 안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겁니다. 그걸 힘이나 능으로 하는 일이면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이냐?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신의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찢리면 아프고,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은 하늘에서 맡겨 주시고, 언약 가운데서 움직이는 성령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가서는 듣지도, 받지도 못하는 것을 이영수란 사람한테 가야만 받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을 가시든, 어딜 가시든, 좋습니다. 가서서 알아보시라 이것입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설교한 테이프를 듣거나 그분들의 설교집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주님의 근황을 아는 분들이 계시는가. 그것도 주의 종이 깊은 내용을 다 얘기 못 합니다. 얘기하게 되면 청천벽력 같은 내용도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압니까? 여러분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한테 1년에 세 차례 정도, 4개월에 한 번 정도

안찰을 받으면 악령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긴 자에게 악령이 건드릴 수 없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긴자가 갖고 있는 무기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무기 때문에 마귀가 떠는 것입니다.

이영수 때문에 떠는 게 아닙니다. 이영수가 갖고 있는 무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 무기가 바로 철장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무기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므로,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둠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리라.” 에덴성회를 시작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매장시켰습니다. 앞선 역사도 나를 매장시키고, 따르는 사람도 의심하고, 뭐 별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Chapter 15.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의 경륜은 신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신이 보이지 않고, 신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뺏 속까지도 살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알려주시는 한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 신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체계를 다는 모릅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당사자에게 이러저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있을 때 상대방은 자기에게 위대한 존재로 비쳐집니다. 교회에 나가면 구호물자를 얻게 된다, 우선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적에 그 종교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을 받는 무당은 신이 써먹으려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필요로 해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신이 사람을 찾을 적에는 신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고,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해서 찾을 적에는 사람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교회에 나가면 이런 이득이 있다 해서 나갔을 때, “나는 교회에 나가서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 당신도 믿으면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중심에서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바라는 바도 있고, 바라지 않는 바도 있습니다. 이때 연단이 없이는 떨어집니다. 신의 역사는 언제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훈련을 성서에서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신과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과 접근할 때에는 시험을 합니다. 신끼리의 전쟁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람을 뺏으려고 합니다. 상대에게 뺏느냐, 뺏기느냐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신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끼리 전쟁할 때에는 대립이 대단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의 역사를 해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해서 모여 가지고 신을 경배할 때에는 사람

이 주동이 되니까 다툼이 적습니다. 그러나 신이 사람을 필요로 할 때에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고자 할 때에는 사단이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 치열한 방해 공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은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부터 있어온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가지고 뜻대로 쓰시고자 할 때 악령은 가만있지 않습니다. 생명과일에 반대되는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마귀는 그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결국은 꺾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끼리 하는 전쟁의 양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하고 한탄하실 정도입니다.(창6:6)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기성교회에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의 섭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신이 직접 움직이는 그러한 섭리가 있을 적에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전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은 무자비한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예수나 믿고, 하나님이나 섬긴다면 마귀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여건이 마련될 때에는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귀가 잠자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워도 그만, 안 싸워도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은 마귀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믿는 그런 종교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감람나무 역사가 전개되면 자기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대로 대비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극비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마귀를 박멸시키려는 역사가 마귀의 비밀을 모르면 싸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악령이 하나님에게 도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그만큼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첩자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간첩이라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첩자의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최대의 장벽인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 성의 흔적을 수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같이하는 여호수아 이고 하나님이 같이하는 백성이지만, 쉽사리 척척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까짓 성 하나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걸 성경에서 수없이 보면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들이 만날 전지전능만을 앞세우니 무엇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부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스파이를 보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어 살피고, 몇 번씩이나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여리고 성을 부순 겁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 하나 부수는 데도 그렇게 하나님과 종 사이에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를 상대로 하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무슨 이렇고, 저렇고, 하는 논란이 필요 있습니까? 수단 방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이것을 일반교회처럼 무심히 생각하고 따르면 이게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종을 따라오시면서 많이 반신반의합니다. 민다가도 육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안 맞으면 ‘아니다’ 합니다. 신앙에 자기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

분의 계산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비춰 보고 ‘아니다’, ‘그렇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스스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러고 성을 쳐들어갈 때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그것이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해서, 안 드는 사람은 불평하고 돌로 치고 그런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겁니다. 그것이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모세를 지지하고, 안 드는 사람은 모세를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로서는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그런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모세를 원망했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날 알곡성전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제 맘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따로 시작해라.” 하신 지시를 따른 겁니다. 전도관에 들어갈 때에도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다가, 잘려서 나와 있는데 “따로 해라.” 해서 따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재산도 엄청난 전도관을 상대하다 안 되니까, 따로 하라는 지시가 내린 것입니다. 돈 한 푼 없는 나에게. 그러나 지시에 따라, 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쪽으로 향해서 자리를 구하라.” 해서 성바오로 병원 4층에 계약

을 해 놓고 집에 돌아오니, 웬 자가용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차의 임자가 하는 말이, 감람나무라 해서 잘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날 찾아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제가 빌려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한 가운데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주님이 꿈에 나타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행23:11)고 하시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돌을 들추라. 거기 금덩이가 있다.” 이렇다면 또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라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가라고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가라면 “네.” 하고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없는 가운데서 그냥 바동거리면서 하나하나 해 나갑니다.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금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알곡성전 지붕을 씌우고 단상 콘크리트를 다 해 놓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붕도 씌우고, 참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 혼자 서러워서 울 때, 성령이 썩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후로도 별관 지어라, 뭐 지어라,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을 볼 때 ‘아, 저 사람 참 복 받았구

나!', '주님께서 불러 주셨구나!', '하나님에게 기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날 보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정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 만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제가 대꾸를 안 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제가 뭐, 그 사람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옥중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주님! 당신이 먼저 쓰신 감람나무도 여기 두 번씩이나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꼭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의 자식들이 풍비박산이 되고, 애비는 애비대로 비참하게 끝난다.” 이런 걸 보여주셔도 나는 일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제가 뭐 그런 걸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꼭 이래야 되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나서 내가 꿈에 만났습니다. 저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상 중에 만나 대화를 할 때마다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뭔데 나서냐?” 만날 그랬어도, 나는 지금도 기쁨부음을 받았던 종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

가,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실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감람나무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은 못하실 망정,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시고 예수를 욕하시면 어떡합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실눈을 떴습니다. 전 잊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감람나무라는 걸 아시고도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성경을 왜곡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고 말했더니, “미안하게 됐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안하게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장로님 때문에 전도관 식구는 나중 역사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저질러 봤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날 이단이라고 하고 욕합니다. 그럼 난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만 딱 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그 양반을 본 장면입니다. 나로서는 영의 세계에 가서 어떻게 그분하고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산다는 게 묘한 것입니다. 영이라는 게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죽으면 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니,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잖습니까? 신이 하시는 일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저를 따르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성회장들의 대부분은 앞선 역사에서부터 오늘날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 저한테 온 게 아니잖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감람나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

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영의 세계에 세워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성회장도 살면 뭐 백 년, 천 년 살 겁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다 돌아가십니다.

저의 이모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안찰 받으러 들어오셨을 때, 전농동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전농동에서 내가 전도관에 다닐 때 무척 비웃었습니다. 그 양반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런 위치가 되니까 조금씩 나오시다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안찰도 받았습니 다.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을 했는데, 이종사촌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고통이 심하니 빨리 돌아가시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 그의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삽니다. 어디가든지 하나님의 역사 밖에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에 세워 드려 면류관을 쓰게 해 주자,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해야 할 일이 뭔가? 요한 계시록의 말씀과 같아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계2:10)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목표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잘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의 종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

니다.

저는 잠 못 자고, 새벽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하니까.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고, 혈압이 올라갈 우려가 많으므로 조정해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순 정신력으로 삽니다. 만약에 주의 종에게 그런 정신력이 없으면 지금쯤 아마 물질에 욕심을 내어 돈이나 많이 벌어서 잘살려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저는 갈비 한 번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포장마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집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 기사하고 다니다가도 점심 먹으러 중국집에 가서 짬뽕이나 자장면을 먹습니다. 제가 어디 가나 잘 먹는 게 강냉이 튀김입니다. 천 원이면 한참 먹잖습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고급차 아닙니까? 그거 타고 다니다가 봉어빵집 옆에다 세우고 봉어빵 먹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땐 무척 기쁩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어찌다가 이긴자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됐나, 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 중에 우리 알곡성전 앞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건 우리끼리나 통하는 거지, 남이 들으면 가소롭고, 이단도 아
닙니다. 그것은 아주 뭐 몇 백단입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되새기
면서 살아야 합니다.

Chapter 16.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감람나무다 이긴자다 하고 말하지만, 모르는 분에게 이 걸 어떻게 전해야 하나, 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감람 나무는 무엇이며, 이긴자는 무엇인가? 따르는 여러분도 막상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면 “감람나무는 이런 겁니다. 이긴자는 이런 겁니다.” 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감람나무는 성경에 들인데, 이긴자는 하나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기 쉽게, 우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알곡성전에 들어오시는 입구부터 영산홍과 철쭉이 만발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벚꽃이 산 주위에 아름답게 피었는데, 지금은 영산홍과 철쭉이 여러분을 즐겁게 맞이하고 있습

니다. 나무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알곡성전 주변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기에 하나님의 종에게 감람나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명한 나무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좀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무화과나무 밑으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쳐다보니 열매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무슨 나무가 열매도 못 맺어.”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녁때가 되니까 그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죽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 나무는 재수 없게 말라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는 비유로도 성서에 많이 나오는 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잣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이 알곡성전 일대는 잣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 나무가 자라고 있지만 그중에서 감람나무가 참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나무는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화장품과 등불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풍토에 맞는 나무 중의 하나인데, 이 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서 화장품

으로 사용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는 그 기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기름을 등잔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감람나무 기름이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실 적에, 감람나무의 역할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금 같은 기름을 전해 주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 존재에게 감람나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겁니다.(슌4:12)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기름이 등잔에 담겨 불을 켜서 밝히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니,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그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하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등대 이쪽에도 감람나무가 있고, 저쪽에도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에서 금관으로 기름이 넘어가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금 같은 기름을 흘려넘치게 하는 이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섰는 두 사람입니다.”(슌 4:14)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여주지 않고 두 감람나무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럼 왜 두 감람나무로 보여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적에 가장 요긴하게 쓰는 기름이 감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가라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록했고, 또 후대 사람들도 그 구절을 읽기만 했지,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라 선지자에게,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힐 적에 그 돌의 역할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슥3:9) 그 돌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사8:14)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성령을 내려보내려면 금 같은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감람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해 기록한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스가라이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 요한입니다. 구약 시대의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는 여호와께서 지시한 거고,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람나무의 명칭은 분명히 두 군데에 나오지만, 예언한 시대가 다릅니다. 하나는 주님 시대이고, 하나는 구약 시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다음에 역사하는 두 감람나무는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다스릴 적에는 스가라에게 감람나무는 이렇게 역사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젊은 종 스가라에게 지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을 저에게 주실 적에는, “2,500년 전 내 젊은 종 스가라에게 지시한 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 계시록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은 여

호와께서 하시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의 사명을 맡는 사람은, 구약 시대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요한 계시록에 대한 설명은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걸 당사자만 아는 얘기로, 누구도 상상 못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인물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서서 기다린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하는 일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에게 맡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 돌을 준다.”(계2:17)고 했으니, 돌을 받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긴자에게 감람나무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긴자가 나타난다는 얘깁니다. 즉, 이긴자가 나타나 두 감람나무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이긴자는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서서 두 감람나무의 일을 하도록 정해 놓은 인물인 것입니다. 이긴자가 나오라는 것은 사실은 단수로 돼 있어도 감람나무가 나타나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감람나무가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놓았지만, 감람나무라는 인물이 있어야만 그 피를 받아서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주님이 행하게 되니, 주님에게 두 감람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이긴자가 합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와 오늘의 역사에서 보듯이, 감람나무는 둘인데, 그 일은 이긴자가 하는 겁니다. 스가라는 감람나무에게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슌4:12) 이 금 같은 기름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를 모셨다는 것은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다림줄이라 말합니다.(슌4:10)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림줄을 통해 금기름을 순금 등대, 즉 교회에 전해 주는 것입니다. 피는 주님이 흘리셨는데, 그 피를 사람들에게 내려보낼 때에는 감람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없으면 내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긴자가 나타나면 해야 할 일이 뭐냐? 감람나무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역할은 이긴자가 등장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와 두 번째 감람나무를 하늘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합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그 언약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뤄 나가는 주의 종에게 오늘날 두 감람나무의 역사에 대한 약속을 하신 이유는, 감람나무는 둘이지만 이긴자는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걸 이어지게끔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등장할 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주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고 말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가 잘됐으면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아버지가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건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핼박과 조롱과 짓밟힘 속에서 시작했으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앞선 역사로부터 이어받게 없습니다. 저는 도리어 짓밟혔습니다. 그러니 저로서야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옛날 모세 때에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라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종이 말을 안 들으니 네가 따로 시작해라.” 그러니 제가 고생을 작살나게 하는 걸 위에서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알곡성전도 앞선 역사처럼 풍성한 가운데 지었으면 ‘수고했다’는 말씀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을 안 먹고, 남에게 핼박과 조롱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성껏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 드리는 겁니다.

Chapter 17.

하늘에서의 전쟁



요한 계시록 한 구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 기리로다.” (계17:13-14)

지금 요한 계시록의 17장 13절부터 읽었는데, 용이 짐승이라는 마귀에게 권세를 준 후에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권세를 받은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을 적에는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는 것으로

알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 2천 년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대신하시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의 영을 불러올려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내용들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관한 얘기보다는 신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택함을 받은 백성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대다수인데, 이 요한 계시록은 거의가 신들의 얘기입니다.

신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설명할 때 그들의 명칭이 나옵니다.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가 그겁니다. 이 마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지적하실 적에 그 신을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는 그런 명칭 정도가 아니라, 신과 신끼리 죽고 죽이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이 싸운다, 하고 말해 봤자 안 통합니다. 특히 어떤 신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더더욱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간곡하게 이것을 믿는 사람들한테 알려달라고 당부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거기 보면 “이긴자가 나와야 한다. 그가 나오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 자상하게 알려 줄 것이다.” 하신 겁니다.(계2:7 등 참조)

요한 계시록을 문제 삼을 적에는 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전쟁을 논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치열합니다. 전쟁은 죽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평화가 옵니다. 둘이 공존하는 동안은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신이 됐든, 한쪽이 승리할 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린 대로, 짐승이라는 악령에게 마귀의 괴수가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맡은 마귀의 이름을 요한 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걸 비유입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맡아가지고 어린 양과 전쟁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같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짐승이라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계13:8)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은 짐승과 싸워서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했으니, 누구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영의 세계가 펼쳐질 때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신끼리 하는 전쟁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어린 양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이 신에게 짐승이라는 신이 도전을 합니다. 둘이서 싸움이 붙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때 짐승이라는 존재는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을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마귀 괴수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권세를 짐승이라는 마귀에게 다 맡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 측의 모든 권세를 맡은 자의 이름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권세를 받은 어린 양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마귀 측의 전권을 쥐고 있는 짐승은 하나님 측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어린 양과 싸웁니다.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 어린 양이 이끌고 나오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군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짐승하고 대결한다는 것입니다.(계19:14, 19)

이들이 짐승에게 지는 무리라면 전쟁에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

습니다. 이들만큼은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합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계 13:8) 그래서 이 멤버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지상에서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을 택하시는가? 짐승에게 지지 않는 멤버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에게도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하늘 군병을 길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멤버들이 형성되면 그들은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억조창생이 다 굴복하는데, 그 멤버들은 굴복 안 합니다. 이런 멤버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여건은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멤버를 만들어 내는 작업 자체를, 음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귀가 가만 두겠습니까? 그 마귀가 가로막으니까, 지금은 그걸 만드는 존재하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음녀라는 존재가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짐승이 지게 되면 마귀가 손을 들게 되는 거고, 어린 양이 지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으면 영원한 복된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알 자가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어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존경받는 기독교의 많은 성직자들, 소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고 지나온 것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왜 모르는가? 요한 계시록의 내용은 이긴자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엔 모른다.” 이겁니다.(계2:17)

그래서 성경에 기록돼 있지만, 수백 번 읽어 봐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한 발짝만 밖에 나가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순교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들만이 하늘나라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합니까? 마귀입니다. 이쪽에서는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뒤를 따라 짐승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짐승에게 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못 이깁니다. 어둠이 빛에 삼킨바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믿은 것입니다. 왜 모르는가? 이긴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세마포를 입는다면 마

귀가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주님의 안내를 받아 지성소에 들어간 영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 야곱의 열두 아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지파에서 족속들이 퍼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한 지파에 일만 이천 명씩,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집니다.(계7:4) 그래서 그 14만 4천 인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계14:3)

그 노래는 군가를 말합니다. 군대들이 하는 노래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훈련받을 때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유행가나 부르고, 명곡을 부릅니다. 하늘나라에서 14만 4천인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평범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늘의 군가입니다. 그 사람들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나라는 일반 사람이 누구나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이 있는 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섭리를 아는 사람들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는데, 그 어린 양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던 주님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여 사도 요한에게 놀라

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입니다. 앞으로 그 주님과 짐승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상대와 싸워야 하는 십자가의 군병은 주님과 방불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반열에 속하는 것을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존재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악령은 불리해집니다. 그게 신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서 일대 접전이 벌어집니다.

짐승이 어린 양과 싸울 때 자기에게 속한 모든 세력을 다 거느리고 대적합니다. 한편 주님은 소위 말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을 거느리고 대적합니다. 주님의 군병은 몇 만 명이입니까? 바로 14만 4천이 주님의 특공대들입니다. 반면에 악령 쪽에 속하는 군대들의 숫자는 능히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닷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계20:8) 그러니까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세력과 싸웁니다.

그 싸우는 장면을 대충 묘사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뭐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이 안 나오나, 두 감람나무가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살아난다는 등, 별 동화 같은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걸 누가 알거나 이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걸 알고 믿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앞으로 영의 세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심판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단7:10)

오늘날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여러분을 사로잡으려는 악령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를 이 음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가면 그때 하는 전쟁은 어린 양이 주도합니다. 그때 마귀의 이름은 짐승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정신을 사로잡는 악령과 성령이 전쟁하지만, 영의 세계는 영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양상이 엄청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육체를 통해서 악령과 성령이 계속 서로 사람을 뺏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혼을 통하여 서로 뺏는 전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끼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영으로 변하고, 악령도 영으로 나옵니다. 그런 전쟁이 남아 있지만,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그런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Chapter 18.

신과 신의 대결 양상



신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이 됐든, 큰 신이 됐든, 사람들을 항상 굴복시키려고 신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이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다른 신에게 과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경륜을 알게 되면 이런 패권주의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을 중간에 두고 신들은 서로 인간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자 겨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라는 신의 움직임과 그 경륜을 표시하고 교류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알려면 다른 신이 지배했

던 사람들이 겪었던 체험을 통해야 합니다.

조그만 신들의 앞잡이가 된 신접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오늘날 술객이라든가 무당은 이런 조그만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큰 신으로 역사한 종교가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또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는 큰 신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 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독특한 인물을 세워 가지고 그 조상을 통해서 태어나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은 우리 인간과 교류하는 차원에서 표적을 남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할례입니다.

그럼 다른 신은 어떠냐? 다른 신이 접해서 들려주는 그 얘기를 토대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신은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입니다.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들 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경륜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그들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끌어가는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백

성들이니까 여호와와의 경륜을 알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율법, 혹은 강령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어느 정도 정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며,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여호와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공자나 석가는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증거하다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세계의 모든 민족을 상대해서 기독교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길러 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민족의 법을 지켜야 했고, 애굽 민족의 풍습을 따라야 했습니다. 입는 옷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것은 없습니다. 애굽인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입고 배우고 보고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살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먹고 입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말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어떤 주체적인 신조가 있었느냐 하면, 없었습니다. 그 민족이 배우고 익힌 것은 애굽의 풍습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신이 지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 속에서 먹고 마시고 배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불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른 민족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걸 바꿔야 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게 뭐냐? 법입니다. 법을 정하여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걸 계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법이 뭐 필요합니까? 법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 법 안에 상대를 끌어들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법을 없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반공법을 없애자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평

화가 찾아오는데, 그게 뭐 필요하나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속력을 벗어나려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별 신이 다 있습니다. 악령은 작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 있는 겁니다. 악령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하라고 말할 정도라면, **(눅4:7)** 악령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모든 설교가 전지전능과 만사형통으로 일관합니다. 듣기 좋고, 배우기 쉽고, 믿기 편합니다. 제가 오늘날 일반교회처럼 설교하면 엄청나게 부흥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할 겁니다.

요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불교는 일리가 없고, 이슬람교는 일리가 없습니까?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종교를 신봉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한 사람을 성인이다, 성자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우상화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자로 살아도 기독교에서는 마귀의 편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곁길로 가서, 거짓 선지자가 수없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면 거짓 선지자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면 정죄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나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뭐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섭리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계시를 보여줄 적에,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행10:11-12) 그러나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니까,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정한 음식이지만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을 때에는 그 음식은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행10:15) 하고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깨고 나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느닷없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의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이방인이지만 맞아들이라고 보여주셨구나, 해서 가서 하나님의 도를 전해 주니, 성령이 그네들한테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구나!” 하고 놀랐던 겁니다.(행10:45)

그러면 축복이 율법에 앞서는 것입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축복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축복할 때에는

부정한 음식도 부정으로 남아 있지 않고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주의 종이 축복한 생수를 섞어서 먹으라고 하느냐 하면, 부정한 음식일지라도 축복한 물질이 섞일 때에는 그 부정이 부정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썩은 송장을 변화시키는 판인데, 음식물 하나 변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감람나무 체계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감람나무를 따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순수성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앞선 역사가 파산됐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 자신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한 번 혼이 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주의 종의 슬하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계신 모든 법도는 거의가 이긴자의 체계에 속합니다. 이긴자의 슬하에서 구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긴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서는 안찰로 성령을 받고, 죽으면 또 생수로 축복해서 시신이 피어 가고, 이게 오늘날 주의 종 슬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셔도 역시 주의 종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까 일단 돌아가시면 서로 교류가 안 됩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아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과 영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육이 있고, 아내는 죽어서 영이 됐다면, 영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그 사람의 영하고 연관이 안 됩니다. 이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이진자밖에 없습니다. 영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것까지 주의 종하고 동행해야 한다면, 가족들보다도 주의 종이 더 가까운 겁니다. 제3자가 들으면 저를 사기꾼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가까운 거야 식구들이 가깝습니다. 만날 눈 뜨면 같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가족들도 못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이진자가 악령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역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가 돌아가셨다, 남편이 돌아가셨다, 자식이 죽었다 하면, 저한테 오잖습니까? 와서, 우리 자식이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자라는 존재는 말로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상대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는 건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옳

은 것 같아도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행사하는 것을 자유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할례를 폐지시킨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언약을 깨 버린 겁니다. 주님도 받으신 건데, 그걸 바울이 깨어 버리니, 지금 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누가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저 자식이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 하고 항의합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니,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베드로를 따르던 열두 사도들까지도 바울의 적이 된 게 아닙니까? 그것을 납득시키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전한 말을 하늘에 있는 천사가 와서 반복시켜도 주님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로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반복하는 자는 주님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갈1:8 참고)

지금 60억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기라성같이 훌륭한 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어떤 영적인 보장이 없으면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태가 됐을 적에는 부정해지지만, 그 부정한 음식도 이긴자의 축복이 가미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것으로 변해 버립니다. 아까

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이라 저는 못 먹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록하게 한 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은 생수의 권능으로 부정한 음식도 정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생수 넣고 생사탕 먹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부정한 음식이 뭐냐, 제사상의 음식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이라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에는 생수를 뿌리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권능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모든 부정한 것을 이겨 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생수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Chapter 19.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하여



요한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더라.” (계7:9-10)

이일 후라는 것은 각 지파에 일만 이천 명씩 인을 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일 후에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바라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일반교회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 한 지파에 일만 이천 명씩 숫자로 열

두 지파가 되면 14만 4천이 존재하는데, 그 후에 다시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 각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둘로 구분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와 깨끗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특수층에 속하는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와는 다릅니다. 흰옷도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상징하지만, 세마포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열에 속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지파에 속한 사람이입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자손이입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혈통에서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사110:4)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을 따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떤 인물이나?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같은 인물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

장하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살렘 왕 같은 존재를 내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보다 월등하고, 훨씬 훌륭한 제사장 제도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인물이 오게 되면 엄청난 변혁을 일으킵니다.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가? 아론보다도 몇 백 배 큰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한테 암시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 중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하니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그런 인물이 내 후손으로 태어날 때, 나는 이미 땅속에 묻히고 음부에 들어가 그분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땅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인물에게 버림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사16:10 참조) 다윗이 앞으로 되어질 걸 알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기묘자요, 모사라 할 것이다.”, “그는 언젠가는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 이런 등등을 예언했습니다.(사53장 참조)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사야는 호기심을 가졌을 겁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의 경우처럼,

“네가 뭘 보느냐?”

“예, 제가 지금 감람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섰는 두 사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니, 스가랴는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인물로 태어날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알고도 만나지 못하고 죽은 것을, 그들이 꿈만 꾸고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마13:17) 꿈은 꺾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꿈만 꾸고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은혜를 이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은 듣고, 보고, 받고 있으니 여러분이 선지자 스가랴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보고자 해도 못 봤으나 너희는 보니까 복이 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도리어 하늘에서는 나중 될 수가 있는 거다. 나중에 나를 만난 자가 더 먼저 나를 예언한 인물보다 앞설 수가 있다.”(마19:30)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선지자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선지자보다 더 큼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중의 한 사람인 요한은 사도 중에도 가장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가 계시를 받았습니니다. 그걸 기록한 게 요한 계시

록입니다.

그럼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기록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당연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선지자들보다 큰데, 사도 중 하나인 요한이 예언한 인물이 등장한다면 선지자나 사도들보다 그 인물이 작습니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지시받아서 기록한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특권을 받는 인물을 부러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서 멜기세덱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눈이 부셔서 까무러쳤습니다. 그런 주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쳐다볼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아, 나니라. 일어나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 땅에 계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야 요한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일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뭐 어찌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렇게 간단한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계19:8) 하고 나옵니다. 이 세마포는 앞에서 말했지만 군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한 생명이라도 좋으니 군병을 길러서 들여놓아라.”

하고 말로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길러 냅니까? 길러 낼 수 있는 재료를 주셔야 기를 거 아닙니까? 그 재료가 바로 하늘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이긴자를 통해서 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이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의 세계에서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은, 먼저 입었든, 나중에 입었든, 숫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지파에 몇 명씩입니까? 일만 이천 명입니다. 열두 지파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그 밖의 무리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아까 내가 읽어 드렸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무한정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고, 14만 4천 명은 왕들입니다. 국가가 14만 4천 개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누구냐?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아내다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어린 양은 아들이니까, 그의 아내는 남입니까? 한 식구입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계13:8\)](#) 그렇다면 일반인은 짐승의 권한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뿐입니다. 이들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

머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각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장엄하고 찬란한 세계에 도취될 때, 어떻게 지상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 가기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를 적나라하게 주의 종에게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어느 시대의 선지자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오늘날이 이긴자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가 복이 있는 겁니다.

Chapter 20.

여호수아와 돌



이 역사에 들어와서 실제로 성령의 훈훈한 맛을 본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깨닫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같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 씬처럼, 주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눈만 뜨면 현실과 부딪히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제일주의로 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은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친구로 삼을 때에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

나님의 역사를 만나 그 은총 가운데서 사는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면, 우리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현실에 젖어, 고통과 번뇌 속에 평생을 살다가 떠나고 말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길선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좀 편안히 죽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동안 우리 역사에 들어오셔서 음과 양으로 변함 없이 주의 종을 따라준 것을 주의 종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총회장님! 제가 지금 뼈하고 가죽만 남아,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빨리 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억을 할 테니, 평안한 마음으로 먼저 가시오.” 하고 말했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주의 종이 뒤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주의 종은 한 생명이라도 영의 세계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살아 있을 때나 죽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살아 있을 때나 육의 장막을 벗어날 때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요14:16)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탐나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교류하는 순간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 영의 큰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가 아니었던들 다른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라도 받았겠지만, 감람나무 역사 때문에 영의 여건이 달라져, 그들의 기도와 찬송과 노력이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주의 종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부러워할지 몰라도, 당사자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과부가 어린 자식들이 잠들었을 때, 어떻게 굶기지 않고 살아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그 심정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들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많다.”(사54:1)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했습니다.(고전4:15)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 자처했고, 앞선 역사는 ‘영적인 어머니’다 해서 영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의 종은 그런 명칭보다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진실과

성실 속에서, 따르는 양떼들이 누가 됐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온 이상, 내가 인도자로서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찬송은 바로 우리에게 안겨 주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적에 그 찬송은 여러분의 가슴속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세파 속에서 시달렸던 모든 괴로움을 찬송이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더없이 반가운 벗이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적에 찬송과 자기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끈질긴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실히 주를 믿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나뉘대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이 시점까지 오셨던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려고 애를 쓰도록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듭니다. 그 강박하게 만드는 와중에서 이 순간까지 주의 종을 놓치지 않고 오신 것도 바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 주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를 하실 적에, ‘내가 어찌다가 이 역사에 들어왔는가!’ 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세상 모든 복잡한 것을 떨쳐 버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되는 겁니다.

성령은 순수할 때 임하시는 겁니다. 타산적일 때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지라고 했습니다.(마18:3) 순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계산이 많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으로 따지고 캐려고 할 때 오관이 생겨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입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누구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데,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하는 것은 주 앞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 앞에는 누구나 새까만 죄인일 뿐입니다. 이 점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이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가슴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거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세 사람 이름을 넣을 정도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을 앞세울 정도라면, 지구상에는 감히 그 세 인물과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세 인물의 이름을 앞에다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여!”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도 여호와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직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요시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 이 일이 안 되면 큰일 난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하면, 내가 일을 맡긴 그 사람이 나한테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이때 그 사람은 나의 분신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3대째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길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르느냐 이겁니다.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소중히 보실 적에는 그들을 상대로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다.” 하셨고, 이삭에게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여호와라는 신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하듯이 너와 함께하마.” 그 다음에 야곱 시대에 와서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야곱아!”

“예.”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제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했듯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네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28:11-15) 하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제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듣기만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한테 직접 나타나시니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압복 강가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야곱이 정신을 차리니까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비몽사몽간에 환도뼈를 얻어맞았는데도 현실에서 다리가 아픈 겁니다. 그런 일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앞선 역사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옥중에 6개월 17일 동안 독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때리고, 교인도 몇 안 되는 나를 짓밟아 아주 박살을 낼 정도였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나를 없애 버리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당하고 옥중에 있을 때, 겨울에는 추워서 몰랐는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니까 밖에는 꽃이

피고 푸른 산이 보이는데, 너무나 갑갑한 것입니다.

저녁때 7시 반에 취침나팔 소리가 나면 다들 누워야 합니다. 잠도 안 오는데, 이튿날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12시간을 누워 있어야 합니다. 낮에는 누우면 안 되고, 밤에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법입니다. 교도관하고 잘 통하면 좀 봐주기도 합니다만, 밤에 앉아 있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야 합니다.

저는 혼자니까 밤에는 몰래 기로를 하고 자는데, 굉장히 지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천사인 줄 압니다.

“절 따라오십시오.”

“어디를 가려는 겁니까?”

“오시면 압니다.”

이 친구가 한참 나를 끌고 가니까 다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야겠소. 힘들어 못 가겠소.”

“그러시면 여기 잠깐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이 광주리에 별 희한한 과일들을 담아 왔습니다.

“이것 좀 드십시오.”

“고맙수다.”

내가 과일을 먹어 보니 참 시원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처럼

럼 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지만 현실같이 막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고 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과일만 갖다 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해도 안 보였습니다. 나는 과일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오던 찰나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내가 답답해 하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구경을 시켜 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성령이 썩— 하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다리가 실제 먼 거리를 걸은 것처럼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잠을 잤는데. 이건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야곱이 세월이 흘러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기게 된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고 다시 일러 주셨습니다.(창35:10)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열두 아들들에게 여호와의 지시에 의해서 축복을 합니다. 노인네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두 아들들에게 하나씩 축복해 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창49:27) 그건 하늘에서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요단강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적힌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에 넣어 보관을 철저히 합니다. 이것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그 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누가 드느냐? 제사장이 듭니다. 일반 사람은 못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제사장들에게만 언약궤를 들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도 쳐부수고, 조그만 나라들도 멸망시킵니다. 이때 군대보다 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일 앞에 섭니다.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보호하며 갑니다.(수6:7) 만일에 언약궤를 누가 건들거나 제사장에게 해를 끼친다면 즉시 가서 쳐부수는 특공대들입니다. 이렇게 전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지 거의 700년 만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가 밟았을 때 그 환희는 대단한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서는 순간의 기쁨은 등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못 느낀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슬하에 들어온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도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보니까 우기를 맞이한 것입니다.(수3:15) 장마철이다 이것입니다. 물이 엄청 많은 시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권능으로 함께하는 것을 너는 봤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며칠 몇 시에 사람들을 모아라.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마. 그때 건너가라. 알았느냐?”

“알겠습니다.” 하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족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 하나님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 주셨다는 증거를 삼아야 하니 각 족장들에게 가장 보기 좋은 돌을 골라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족장이 가서 돌을 가져왔습니다. 큰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색깔이 하얀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게 한 표적이다. 이 돌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돌은 하나님의 역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Part 04.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21. 지옥의 현주소 · 22.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 · 23. 삶과 죽음 · 24. 어느
신의 지배를 받느냐가 문제다 · 25. 신과 신의 전쟁에 대하여 · 26. 주님은
어찌하여 길인가? · 27. 오늘의 우리 역사

Chapter 21.

지옥의 현주소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누구나 고심합니다. 성서를 읽어 깨닫고, 또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니까,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하고 느끼면서도, 영의 세계는 어떤 곳인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죽기 전에 그 세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어떤 종교를 믿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포기합니다. 자기가 죽음에서 헤어날 힘도 없고, 또 지혜도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나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를 다룬 것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서에 죽음

에 대한 답변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착한 일을 하여 가는 곳이 천국이다, 또 범죄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뭐냐?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지옥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멸망시켜 던지는 불못이다, 이렇게만 쓰여 있습니다.(계20:10) 요한 계시록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막연하게 나와 있지만, 천국이 이런 곳이다, 어떻게 가는 거다, 이런 얘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주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길을 따라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다 하고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독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분들까지도 돌아가실 적에는, 내가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자기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영적으로 아는 분들은 오늘날까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생애를 마친 사람이지만, 아내 사라가 죽었을 적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걸 몰랐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한다는 슬픔에 잠겨 며칠씩 잠을 못 이루며 울고불고한 것은 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볼 때, 영의 문제는 살아 있는 사람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을 두려는 것은, 죽으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내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후손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문제를 다는 모르지만, 신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정된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적에, 세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 줄 알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는 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현재 육을 갖고 있는 세계와 이어지는 곳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가면, 혹은 내세에 가면 자기가 형제자매를 만난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곳과 다르고, 엄청나게 복잡한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자기 생명체가 영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갈 때에는 어딜 가든, 음부에 가든, 지성소에 가든, 가면 그곳은 이미 거대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적응하게 됩니다. 누구나, 나는 세상에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갈 거다,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의 종이 영의 세계를 다 아느냐? 다는 모릅니다. 저도 비취지고 꺾여 본 차원에서만 어느 정도 아는 거지,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자연히 영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 근래에는 제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좀 약해지셨습니다. 80세에 돌아가실 분인데, 더 살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어머니는 80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 알곡성전의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시면서 그동안 편안하게 사신 분인데, 좀 더 살기를 원하니 이제는 하늘에서 기억하셔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는 일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니까 하늘의 처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는 제가 관여할 일이 못 됩니다. 신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면 그분의 행적을 제가 잘 압니다. 제 슬하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의 친척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참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분이 제 밑에 있던 어떤 사람의 집안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아셔서 적절히 대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수 축복을 해 드리는데,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우리 선교원장님을 위시해서, 성회장님들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몇 년 지나면 다 돌아가십니다. 제 슬하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죽음으로 끝나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고 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영의 문제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본인들이 준비도 합니다. 그냥 어물쩍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 그야말로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긴자라는 하나님의 종의 슬하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 시대의 섭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는 피가 있고, 핏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혼이 존재합니다.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걸 느낍니다. 혼은 신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정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이다, 혹은 혼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음부가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마16:18-19) 이때 주님께서 음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음부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사람의 영을 음부가 다스린다는 뜻이 됩니다. 음부가 사람의 영을 다스리는 권한이 없다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음부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영을 지성소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자이고, 마귀는 음부의 사잡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현실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적에 순간적으로 현실을 느끼기도 하고 이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런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비몽사몽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비몽사몽을 겪고 나서 어느 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지성소로 가는 영들에게는 천사 둘이

안내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음부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음부를 다스리는 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영을 모르는 분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 계시록의 각본대로, 성령이 이겼다, 참람된 말을 하고 참소하는 자가 다 사라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래서 심판이 베풀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심판이 베풀어지면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은 마귀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같은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걸 제가 이상 중에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영들이 사는 곳에는 광채가 있고, 형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곳은 어둡습니다. 어둠의 장소에서는 광채가 나는 빛의 장소를 바라보고, 빛의 장소에서는 어둠의 장소를 서로 바라봅니다. 지옥과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마포를 입고 돌아가셨다면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성소로 갑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영접하여 지성소에 있는 영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여러분은 그들

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성소에 있는 영들은 지상에서 진행되는 감람나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께서 어떻게 계시느냐?” 여러분이 그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성서에 나타나 있는 역대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직접 만나 보게 됩니다.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장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지성소에 있는 영들은 같은 시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다 시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좌정시켜 놓고 하나하나 불러서 상을 주실 적에, 앞선 종도 거기 있다가 부르심을 받지 못하여 사색이 되었을 때, 제가 주님께, 장로님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상을 주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냉담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요6:56-57) 이것은 최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 살과 제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하느냐?”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애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포도주를 피로 비유하고, 떡을 살로 비유하였다 하여, 그 비유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여 성찬의식을 합니다. 그래

서 많은 분들은 그 떡을 주님의 살로, 포도주를 주님의 피로 상징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안찰을 하면 주의 살과 피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수는 뭐냐? 제가 기운을 불면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떠다 놓은 그 물통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주의 살과 피가 들어가는 겁니다.(계 11:6)

그 생수를 발라서 송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의 살과 피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죽은 송장이 변한다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도, 생수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잘 변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송장보다 산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은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전파와 같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종류의 전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맞추면 라디오도 나오고, 텔레비전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사이클을 맞춰야 합니다.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이긴자를 통해 받던 은혜를 직접 받게 됩니다. 생수를 체험한다든가, 이슬이 내리는

걸 느낀다든가, 가슴이 뜨거워진다든가, 목구멍이 달콤해진다든가, 뱃속이 시원해진다든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아, 성령이 왔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였든 안 뜨였든,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이슬이 내리는 것을 봤다든가, 잔잔한 분수에서 나오는 물길 같은 것을 봤다든가, 아니면 주의 종의 이마나 손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본다면 영적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섭리를 다는 모르더라도 영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해 영의 세계에 대해 배우면서 차근차근 그 세계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속에 있는 혼하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이 연결되어 영혼이 이루어지면 그 영혼을 하늘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은 제 슬하에 들어오신 분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도력에 허점이 많다 보니, 가나안 땅에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여러분을 이끌어 오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세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기력이 없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의 일도 못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서 조금이라도 영의 세계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15~6년 전 알곡성

전 지붕까지 하고서, 초저녁에 혼자서 알곡성전 단상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알곡성전 지붕 뚜껑을 덮고 보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설움이 복받쳐 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역사가 이렇게 초라해야 하나 하고, 그동안에 걸어온 발자취가 너무나 고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떡하나, 여건이 그런걸.

제가 무슨 건축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지어 나갑니다. 그 모든 건물이 전부 주의 종의 머리에서 나와 지어지는 겁니다. 위에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트랙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운동회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지어서 성도들이 기쁘게 사용하려고 했지만, 앞으로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영의 세계는 만들어져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영의 세계에 가서 대우를 받게 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교원장님을 위시해서 성회장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들 영의 세계에 가서 “아, 제가 총회장님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게 큰 소원입니다.

Chapter 22.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



지금 부른 이 찬송대로,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은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영의 세계에서도 늘 찬송하면서, 전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것이 가슴속에 있을 때에 주가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식어지면 가슴속에 찬바람이 불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 할 큰 의무는 주의 역사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할 일이 그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고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도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은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영광의 구주가 날 사랑하셔서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금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영의 세계에 가서까지도, “주님을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기가 이 찬송과 결부가 됐을 때 이 찬송은 곧 자기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같이하는 자는 천사도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이 함께하시면 그는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다.”(마6:24) 하신 것처럼, 한 종이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매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16:24)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마귀와 싸우는 일인 고로,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택할 적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라.”(마7:13) 그 좁은 길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갖가지 장애물을 넘는 고통을 겪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안일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연단과 시련과 괴로움 속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진실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여호와와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뒤따르

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한평생의 발자취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결과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역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세에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자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일러 주는 얘기를 잘 들어라. 나는 여호와라는 신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터이니,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언약을 나와 맺자. 그러면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을 지켜 주마.”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아브라함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최고로 섬기고 있는 고로, 그 꼴을 여호와께서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알 신을 제거해야겠다.” 그리하여 그걸 실천하기 위해, 나라들이 많은 가운데서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살던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신이니라. 앞으로 너는 나를 찾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이 많은 시대에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신과 교류하는 사람은 자기와 대화한 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신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네가 지금 편안히 살고 있지만, 붓짐을 써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라.” 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 번 이사하면 하나

님이 또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또 몇 년 있다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가 바람에 날리는 티끌을 보고 있습니다.”

“네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셀 수 없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창 13:16) 이후에 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하늘의 별을 보고 있습니다.”

“네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셀 수 없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창 15:5)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처는 이미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13살이 된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서는 이 아들을 통해 내 후손들을 퍼뜨리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네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 자식 말고, 네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된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창17:17) 그 까닭을 알고 아내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쪼글쪼글하여 이미 노파가 되었는데, 아기를 배다니.’ 이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반드시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엔 네 아내가 늙었다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줄 알지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내 신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암시를 준 것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알곡성전을 지시해 주셨을 적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거다. 가뜩이나 어려운 역사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너는 따르는 양떼들에게 헌금하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헌금을 강요해서 지어도 어려운데, 헌금 소리를 하지 말라니, 난감한 겁니다.

콘크리트를 쳐서 지붕에 스투드 딱 덮고 나니까, ‘어휴, 이제 됐다.’ 했습니다. 비가 안 새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저녁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알곡성전의 지붕을 씌웠습니다. 이 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는 천막 하나 칠 수 없는 특수 군사지역인데, 허가가 나고 지붕까지 씌우니 감지덕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만 짓는 줄 알지만, 허가가 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주의 종은 속이 새까맣게 탄 것입니다. 말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게 이러냐?” 따르는 양떼들이 이렇게 말할 걸 뻔히 압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감격해서 눈물이 흘렀습니

다.

앞선 역사와는 달리, 핍박과 조롱 가운데 이끌어 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한편으로 감람나무 역사가 이렇게 초라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니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한참 우니까 성령이 위로해 주시느라고 은혜가 ‘씩’ 하고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 하고 나면 또 하나를 비취 주시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또 뭘 해라 하시고. “네, 알았습니다.” 하며 해 나온 게 우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발이 닿는 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이제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하니 신발이 필요 없어. 그러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게 다 비유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다른 사람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돌에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다 때려 부셨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서 받아온 게 십계명입니다.

모세 때 와서 지파를 형성해서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첫 언약의 기간으로서 끝을 냅니다. 그 후부터 새 언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영적인 지파를 형성하는 시대에 주의 종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흰 돌을 받게 되는데,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지만, 그 돌을 받는 자밖에는 내용을 모르게끔 예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계2:17) 제가 그 주인공이 아니면 어떻게 그림 보듯 영의 세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펼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길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고전2:10)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비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것은 그들에게도 희소식인데, 제가 세상 얘기를 한다면 사이비입니다. 자기 개인 얘기를 한다면 사이비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면 사이비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사이비이고, 주님을 증

거하는데 어떻게 사이비입니까?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내가 한 설교를 머릿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 설교는 여러분이 사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데 따라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난 건축가도 아닙니다. 건축의 ‘건’자도 모릅니다. 나는 이 첩첩산중에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지을 적에 설계도 없이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제가 지시해서 이룬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어도 공사하다 무너지면 작살나고, 사람이 죽는 판에, 17~18년 동안 전문 설계사도 아닌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공사하는데 오늘날까지 사람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영화배우 협회 이사장 신성일 씨가 와서 나한테 그러합니다. 이 공사를 한 지 몇 년째냐고.

“17년째입니다.”

“사고 난 적이 있소?”

한 사람도 죽은 적 없다고 말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도 다치고 죽기 일쑤인데,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17년 동안 지으면서 사람이 죽지 아니했다면, 이건 신의 보호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신에 대해서 모른다. 허나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들을 전문가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추어가 지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잖

습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은 행복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쥐고 있으면서도 모르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Chapter 23.

삶과 죽음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 낼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살입니다. 현재의 괴로움이 극심할 때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현재 사는 고통을 죽음으로 면해 보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보다는 죽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최악 세상보다 월등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확신하고 있는 분들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들이 곧 순교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사람은 죽음과 싸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래서 현실 세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죽음 자체가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반대로 현재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은 죽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에이, 이 괴로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의 문제를 그야말로 도통했다 할 정도로 영의 세계, 사후 세계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아픈 사람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일쑤이고, 또 좀 더 좋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빨리 낫기를 바라게 됩니다.

어쨌든 죽음은 불가사의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었던 새파랗게 젊든, 잘살든 못살든,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적에는 자연스럽게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 공포를 느끼는가? 바로 현실 세계와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 속에서 자신이 떠난다는 아쉬움 때문에 더욱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에 대해, 잠깐 자는 데 불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소리에 일어나게 된다.”(고전15:51)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 나팔소리에 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말이 자세히 나오는 것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나와 있습니다.(계8:2)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죽음에 대해 정의를 내려서 양떼들에게 설교하고 싶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 자체에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께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다가 죽게 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요 6:40)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호기심이 큽니다. 우리 식구들이 저한테 영의 문제를 배우고도, 몸이 아파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의문을 안 갖는다면 거짓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이 임박하면 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나 사실 100%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정우현 선생님 같은 사람에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상대가 그걸 다 믿어 주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여러분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제가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이득을 도모하고자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줄 일이 뭔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남부럽지 않은 존재로 탈바꿈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라도 영의 세계에 가면 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총회장님 때문에 이렇게 영의 세계에 와서 이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살 사람에게는 얘기해 줍니다. 영의 세계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수많은 양떼를 끌어나가는 목회자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긴자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 이긴자가 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어느 정도 비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따르게 되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겠습니까?” (마19:27) 하고 물었을 때에도, “내가 이기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적에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 있다.” (마19:28) 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단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요즘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문제는 없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훼방하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무조건 전지전능하다,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무조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설득할 수 있느냐?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번지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100% 아신 게 아닙니다.(마24:36)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의문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겁니다. 꼭 내가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마26:39)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죽음을 면케 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기독교를 우리만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난히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찍하면 사이비다, 이단이다, 하는 우리 단체가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악령의 존재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마귀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압니다. 인류가 이렇게 도탄에 빠진 것이 악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독교는 천사가 범죄해서 마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내쫓아서 된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지금 너희들에게 그 말을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한다.”(요16:12)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가 세상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얘기를 알아듣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얘기를 영원히 안 하시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때 하게 될 거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때 이해하게 된다.”(요16:13)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고, 나보다도 더 큰일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야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요14:12, 16:7)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기독교는 주님이 제자들하고 계실 때 하신 얘기만 제일로 여기고 다른 생각은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생수로 주시는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하늘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누가 됐든, 실질적으로 말씀과 부합되는 은혜가 있을 때에는 기독교가 그걸 알아봐야 합니다. 알아보고, 사실이면 따라야 하고, 사실이 아니면 배척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다.”, 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의문을 갖는 목회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으면 구원 받는다,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만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다.”(요16:7)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던 내용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계실 때의 말씀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은 다른 보혜사가 온 다음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실상 다른 보혜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다른 보혜사에 대해 유념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과 같은 성령이 다른 보혜사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린다. 이 생수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요7:38-39)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런 성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

수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아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주어진 은혜는 불과 같은 은혜입니다.(행2:3) 생수는 안 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물과는 정반대되는 불이 온 것입니다. 생수가 안 오고 불이 왔는데, 그 불을 2천 년 동안 기독교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날까지 인정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알려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2천 년 동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을 오늘날까지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내리게 하소서, 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보혜사인줄 압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주의 종이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럼, 덮어놓고 아니라고 말하면 되느냐? 왜 그게 아니냐 하는 반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반증이 뭐냐? 다른 보혜사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재료가 없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는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구닥다리 옷을 벗기려면 새 옷을 준비해 놓고 갈아입혀야지, 옷도 없이 남을 발가벗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발가벗겨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라는 존재를 최초로 시인하신 분이
니다. 마귀를 직접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존재다, 내가
마귀하고 이렇게 대했다, 하고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네가 나한테 경배해라.” (눅4:7)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절해라. 영화를 주겠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
다.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내 아버지 대왕
마마의 아들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는데, 네가 내 세상에
왔으니 나한테 경배를 하면 이 권한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시게 돼 있다.” (고전15:25)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광경을 보고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
다.(고후12:2) 어느 정도 그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을 천사가 와서 변경을 시킬지라도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갈1:8)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우스운 존재입니까? 강한 존재라는 걸 사도 바울도 시인을 했습니다.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실 정도인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 알았다면 이 세대의 관원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다.”(고전2:8)

제가 얘기를 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제시해야만 제 말을 인정합니다. 누가 제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에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적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자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세주로서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기독교가 이렇게만 압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필 기독교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처참하게 죽여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대답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기 싫다는 아들을 죽였느냐? 대답할 사람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가서 알아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가? 여러분 중에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사7:14) 이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기묘자요, 모사요, 요상한 인물이 될 거다 이것입니다.(사9:6) 또 남들에게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사53:7)

그럼 이런 인물이 어떤 루트를 타고 태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지적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 다윗은 자기의 혈통에서 그런 큰 인물이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기도했습니다. “내 후손 중에서 그런 인물이 태어날 때 나는 음부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면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구원시키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은 두 감람나무에 대해 보여주실 적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정녕 네가 모르겠느냐?”

냐?”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이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서 있는 두 사람을 말한다.”

(눅4:14)

스가랴는 두 사람이라는 말에 선지자로서 귀가 번쩍 열린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기에 저런 모습으로 나한테 보여주셨는가, 그 두 인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느끼고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나에 대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만나고자 했으나 못 만났고,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못 들었지만, 너희들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보니, 보는 눈과 귀가 복이 있다.”(마13:17)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상대가 몇 명이냐? 12명입니다. 그 당시에 뭐 큰 인물도 아닌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어찌 세상이 알아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의 섭리는 하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홀로 있는 여인이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 자신도 이게 무슨 말인가, 처녀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약혼한 여자에게, 결혼도 하기 전에 천

사장이 나타나서 본인에게 통고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냐고 하자, “댁은 아들을 낳을 겁니다.” 하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약혼한 남자는 있어도 그의 손목도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성경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돼 있지않습니까? 그 말씀이 댁한테 이루어집니다.”(눅1:35)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지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2,500년 전에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나 여호와가 지시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저는 스가랴가 젊었는지, 늙었는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젊은 종 스가랴’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해, ‘그 당시에 스가랴가 젊었었구나!’ 이렇게만 느낀 거지, 그렇다고 몇 살인지, 뭐 내가 선지자의 나이를 캐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시대에 제가 할 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시대에 감람나무 역사를 하지만, 나는 이 감람나무 역사를 2천 년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고,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든, 그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챙깁니까? 의심하고 떨어져도 할 수 없는 거고, 부인하고 떨어져도 할 수 없는 거고, 개새끼, 소새끼 해도 할 수 없는 거지, “너 왜 떨어졌어?”

하고 닦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앙은 자유인데, 뭘 알가알부하겠습니까?

저는 심부름하는 위치다 보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신기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잘 몰라서 떨어지면, 지옥이 있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생명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발발 땀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제가 공포를 느낍니다. 혹시 잘못되지는 않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나야 안 나가면 그만이야. 딴 교회 나가면 되잖아.’ 이러면 간단할지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데가 어디냐? 가평입니다. 다음에 물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상천입니다. 윗상 자, 샘천 자. 물이 제일 좋기 때문에 ‘상천’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금요일 저녁에 와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보내고 월요일에 바로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거리가 딱 알맞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울시의 공해가 문제가 되고, 너무 멀면 출퇴근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알맞은 곳이 바로 우리 성전 일대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앞으로 청량리역에서 여기까지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나 마 찬가입니다. 앞으로 몇 년 만 지나면 사회 사람들이 이곳에 와 보고, ‘정말 멋있다!’ 하고 탄복하게 됩니다.

Chapter 24.

어느 신의 지배를 받느냐가 문제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너는 죽게 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죽으면 극락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유래된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극락세계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불이 돼서 극락세계에 간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지옥을 다스리는 총사령관을 염라대왕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2,500여 년 전에 석가가 창시했고, 기독교는 2천 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에 의해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영의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

교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일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영의 세계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이긴자의 역사를 알게 되어 비로소 영의 세계가 어떠한 곳인가를 윤곽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긴자를 택하여 이끌어 가실 적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옥이 뭐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힌다고 일반 기독교인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고작 60년 안팎인데, 뭐 나머지 시간이야 어리고 늙고 하니깐 별 볼 일 없는 거고, 오래 산 사람도 5, 60년 세월이 지나면 그만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영의 문제에 대해 무얼 깊이 알고 가겠느냐 이겁니다. 대개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살인범이야.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들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긴자의 역사를 따르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면 못마땅하여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긴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아니었구나! 이래서 이긴자가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20여 년 되고, 천주교가 들어온 지가 230여 년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불리기 시작한 것은 천주교부터 계산해도 23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씨 조선은 5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씨 왕조로서 태조 이성계로부터 27대 임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종교가 있어 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성계도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기독교에서 볼 때는 누구의 슬하에 있습니까? 사단의 슬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보는 최고의 원수는 불교입니다.

저도 안찰을 해 봐서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씩워 왔다든가 하면 안찰 받을 때 누구나 그냥 나가떨어집니다. 따라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찰 받을 때, 나쁜 짓을 해서 사지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방언 받은 사람이 안찰을 받으면 남을 괴롭혀서 뺏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신끼리의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이걸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니까 선하고, 나쁜 일을 하니까 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그것이 전혀 해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긴자는 뭐하는 사람인가? 마귀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 보는 겁니다.

다. 따라서 마귀와 짝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최고의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생각엔 아무리 옳게 느껴지더라도. 그러니까 신의 체계를 모르면 선과 악이 뭘지, 따르는 양때들도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 줬습니다. 정탐꾼은 오늘날 말하면 간첩입니다. 이북에서 간첩이 내려오면 그 간첩과 접선해 가지고 사형을 받는 것을 여러분은 몇 년 전에 보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생 라합이란 여자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줬습니다. 그 대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이 하나님 앞에는 선이지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생 라합은 역적입니다. 기생 라합 때문에 여리고 성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차원이 일반적인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엔 선이지만, 마귀에게는 최고의 악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믿는 종교입니다. 주님은 그 초대교회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계2:7 등)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이 예정했던 뜻을 준행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자가 나오지 않은 채 기독교가 퍼져 나가면서 세계화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에서 이긴자가 나온 겁니다. 기

독교 역사도 제일 짧은 나라에서. 이긴자가 나오게 되니 주님은 초대교회 때 계획하신 일을 이긴자를 통하여 시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5천 명을 상대했을 때에 이긴자가 나와도 이긴자의 역사를 따로 하시게 되고, 20억이 있을 때 이긴자가 나와도 이긴자의 역사를 따로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때 나머지 20억은 감람나무의 섭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손해를 보면서 감람나무 역사를 따로 하시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억이 되었던, 100억이 되었던, 감람나무가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 이득이 되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선 이걸 위하여 시작한 게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감람나무가 나타나게 되면, 그 섭리에 들어오질 않으면 나머지 예수를 믿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그 나머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통하여 엄청난 수확을 얻고자 하셨던 그 역사가 붕괴되면, 하나님이 건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 세워진 성전이 알곡성전입니다. 교회는 세계적으로 수십 만 개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명색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적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일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곡성전이 유일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감람나무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하는 성전은 그 성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평생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죽으면 썩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하고, 어둠의 세력이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신이 지배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의 종이 지시받고 보니, ‘이거 큰일 났구나!’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나라로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전 세계의 큰 교회를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우리나라의 모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때 중간에 악령들이 영을 내려보내 가지고 지배하는 광경을 비쳐 주시면서, “저걸 보라. 저들은 내가 주는 줄 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납득하기가 힘든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한국만 해도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는 몇 부제로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도 돌아가시면 금방 눈이 썩고, 귀가 터져서 피가 나옵니다. 관이 피로 흥건히 젖습니다. 왜? 역사하는 신이 다른 겁니다.

옛날 순교자들은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사자 밥이 되어 비참하게 죽어도 그 얼굴 모습이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화사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집안이나 친척 중에서 비참하게 썩는 그 시체에다 생수를 바르면 아름답게 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역사하는 신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이긴자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긴자는 하나님의 전권을 맡아 가지고 여러분을 군병으로 길러, 강제로라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의 내용을 모르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역사를 따르실 적에, 이해가 안 가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긴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이 저에게, “너를 대하는 자가 나를 대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차원에서 우리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집안이나 주위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무슨 큰 공로가 있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일반교회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시던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돌아가셔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긴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긴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시대는 자주 있느냐? 한 시대입니다. “여호와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슥14:7) 즉, 한 시대로 끝납니다. 두 감람나무 시대가 그것입니다. 처음 감람나무와 두 번째 감람나무가 호흡이 맞든, 안 맞든, 그건 한 시대로 끝납니다.

오늘날 감람나무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오는 걸 봤습니까? 안 옵니다. 아무리 은혜가 많고 말씀이 오묘하다 해도, ‘자기를 통해야 구원받을 수 있대!’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일단 사이비로 돌려 버립니다. 그 이상 깊이 들어가서, ‘왜 이 사람을 통해야 하는가?’ 이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도 사이비 종교들도 많으니까.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주의 종을 따라오는 가운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하려고 움직인다면, 그 자체가 누구한테 이득을 드리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득을 드리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결정적인 손해가 갑니까? 마귀에게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바보입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를 우리같이 미약한 힘으로 박멸시킨다, 굴복시킨다, 하고 말하면 아무도 믿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과 어둠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단이 지금 몇 백 평됩니다. 빛이 없으면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봅니다. 그런데 전등이 하나만 있어도 이 안에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빛과 어둠의 비중이 그겁니다. 어둠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빛이 움직일 적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빛에 필요한 수는 14만 4천이면 됩니다. 어둠에 필요한 수는 수억입니다. 바다의 모래알 같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게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14만 4천 명이 상대를 합니다. 이게 신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종과 함께 일을 해 나갑니다. 마귀가 이긴자의 일을 차단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긴자를 차단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긴자가 움직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점령할 수 있어도 이긴자의 움직임은 차단을 못 합니다.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게 신의 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긴자가 나오길 기다린 것입니다. 남들을 사단이 다 사로잡을 수 있는데, 이긴자만큼은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합니까? 이긴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긴자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긴자를 만나도록 가만두겠습니까? 못 만나도록 막는 게 마귀의 할 일입니다. 이긴자를 만나기만 하면 누가 됐든 영이 삽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만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떨어뜨려야 자기 밥을 만드니까.

이긴자의 슬하에 있는 한은 마귀가 잡지 못합니다. 전에도 얘기 했지만, 무당이 된 설승현이란 사람이 간혹 안찰을 받으면 악령이 틈타지 못하는데, 제단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찰을 못 받으니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무당집 아들입니다. 무당신이 들어가서 유명한 무당이 됐습니다. 제단에 계속 나왔으면 무당신이 못 들어갑니다. 안찰을 받으니까 악령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안찰 받지 않고 사회에서 살고 신앙을 지킨다고 해 봤자, 악령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악하고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어느 신의 지배를 받느냐가 급선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을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이긴자만 압니다.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으니,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이긴자가 알아서 데려갑니다. 그럼 상대가 분명히 이긴자라는 걸 알게 될 때는 그 나머지는 이긴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저를 믿고 모든 걸 저한테 맡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길러 냅니다. 체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어서 살 수 있다면 이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긴자를 통하지 않으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주님이 이긴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우리 역사에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신령한 말씀들을 듣는데, 수

십만 명이 모이는 데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보혜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성서에 있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 섭리를 이끌어 가면서 모든 걸 키워 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몸담은 여러분을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정신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열성도 내셔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에게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은 이긴자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긴자를 놓쳐서 이긴자와 멀어질 때는 마귀가 바로 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그 누구도 이긴자의 슬하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떨어졌다 하면 끝나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의 싸움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이제 3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서 피어 가는 영체들은 마귀에게는 적수입니다.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하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Chapter 25.

신과 신의 전쟁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전쟁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가공할 무기인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적에 모두 무척 놀랐습니다. 한 번 폭탄이 터진 자리는 50년 동안 풀이 나지 않을 정도이고, 그 유전인자가 후손들을 불구자로 만드는 가공할 무기가 50년 전에 사용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 50년 전에 터진 원자탄은 비교가 안 되는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 해서 세계가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되고, 미국에 비하면 남북한 합해도 48분의 1입니다. 러시아는 더 큼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방출되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발전

소에서 일어나는 방사능이 방출되는 것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는데, 50년 전 원자폭탄을 과학자들이 TNT 2만 톤이다, 5만 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핵무기 하나가 일본을 때린 원자폭탄보다 100배나 강합니다. 지금 그 핵무기가 하나 터지면 초기 원자폭탄의 100배에 가까운 위력을 발휘하여 지구는 그냥 쪽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쏘이면 그냥 녹아 버립니다. 열로 그냥 싹쓸이를 합니다. 이런 무서운 무기를 세계가 만들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지구를 한 번 박살을 낼 수 있는 양이고, 소련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지구를 열여덟 번 박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핵무기는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영국과 인도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지는 날엔 지구가 박살이 납니다. 이런 핵무기를 로켓에 실어서 터트린다면 미국이란 나라도 큰소리를 칠 수 없는 겁니다. 핵무기 한방이면 워싱턴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무기를, 다른 나라도 아닌 조그마한 북한에서 만든다고 해서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로켓을 발사해서 핵무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5분 만에 끝납니다. 서로의 거리가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가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싣고 로켓을 쏘면 사전 탐지를 해 가지고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신형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테러분자들이 미국에서 장

난질을 하니까 전전긍긍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그 양상에 따라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전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요한 계시록에는 이 영적인 전쟁의 각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신끼리의 전쟁입니다.

일곱 우리가 발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치 말라고 해서 기록을 못했습니다.(계10:4)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얘기는 기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습니다.(계10:7)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돼야 주님이 구원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답이 나와 있지 않으니, 구원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설교를 하니까, 제 말 자체가 비중 있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부인을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십만 명의 목회자님들이 여기 계셔서 제 말을 들으면 “그래, 맞는 말이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을 놓고 수만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성서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주님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건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니라.”(마24:36)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걸 아무나 아는 얘기가 아니다. 너는 가만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대가를 받아라.”(단12:9) 죽어서 편히 기다려라, 그 소리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멸망 받는 때를 말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지막이 되려면 마귀가 박멸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박멸되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가장 소중한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다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계19:14) 땅의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는 뭐하는 집단입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집단이 군대입니다. 아무에게나 무기를 안 줍니다. 그러나 군대라고 해도 아무 때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군대는 무기를 쓰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어떤 무기가 있느냐, 그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서로 따집니다. 함부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 스파이가, 소위 말해서 간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

하기 전에 간첩이 먼저 활동합니다. 상대를 알고 싸워야 하니까.

하나님이 “알곡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일단 보여주시면 먼저 지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 하고 보여주셔도, 그대로 하려면 제가 현장을 봐야 합니다. 보여주신 대로 하려면 이걸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집을 지을 사람이 현장에 가서 봐야지, 하늘나라에서 집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를 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나라를 잘 감시해야 합니다. 이걸 담당하는 사람을 작전 참모라고 합니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참모들이 있어야 합니다. 참모들이 ‘지금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야 번창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회장이 보고서 그 사람 말대로 했더니 정말 잘되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이놈이 참 머리가 좋구나!’ 하고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일을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를 구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온 누군데 어찌고, 하고 스카우트합니다.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줄 테니까 와서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설계사나 건축사들하고 의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설계도도 제가 만들어야 하고, 윤곽도 제가 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세상일은 안 그렇습니다. 회

장이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결재 받아서 짓습니다.

천호동에 현대 백화점을 짓습니다.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이걸 누르려면 여차 저차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 그래. 알았어. 몇 백 억에 지어.”

그럼 건축이 된 후 회장이 시찰을 나가서 “잘 지었네”, “잘못됐네.” 이릅니다.

롯데 호텔하고 신라 호텔이 그렇게 경쟁이 붙었습니다. 롯데는 38층으로 올리고, 신라는 경치 좋은 데로 대지를 구입해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일은 참모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스카우트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짜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곡성전을 어느 쪽으로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해 나가지만, 사회 사람들이야 그걸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움직이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야!”

“예.”

“너 천막으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라.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렇게 지내라.”

“알았습니다.”

이런 게 다 구약 시대의 일입니다. 여호와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이걸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걸 좀 보여주셔야겠습니다.” 하여 보여주심을 받아서 일할 경우는 참모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윗이 그러서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이 그대로 해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대상28:19)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을 해서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있고, 본인이 인솔해서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뭐하는 존재인가? 부하들을 끌고 나가서 선두에 서서 싸우는 인물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명령해 놓고 뒤에서 지시하는 처지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나가서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그때 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럼, 두 감람나무가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면,(계11:7) 상대방인 적이 만만합니까? 죽기까지 할 정도니, 영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령관이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면 따르는 군대들은 편 안할까요? 그 역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계13:7) 이런 무서운 전쟁에 대비하는 군병들이 놀고먹겠습니까?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4만 4천인밖에는 부를 자가 없다는 노래는 군가입니다.(계14:3) 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가를 배워야 하는 하늘나라의 군대는 몇 만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계14:1)

Chapter 26.

주님은 어찌하여 길인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상고할 적에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 사도 요한을 영적으로 불러올리셔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데, 그 내용하고 그동안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내용들 사이에 격차가 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바로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시대까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움직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를 믿는 숫자

는 많이 늘어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기까지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지구상에 사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펼쳐놓은 기독교의 운동,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교운동을 펼쳐서 초대교회의 기반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시체를 없애 버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할까 봐, 그런 여론을 차단시키기 위해 미리 로마병정들을 시켜서 큰 돌로 무덤 어귀를 막아 놓고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돌이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삼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유대교를 신봉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마호메트가 등장하여 이슬람교를 만들어 포교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가 각각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종교 문제가 얽혀 가지고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전과는

다른 주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방에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갑니다.(요20:19) 육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면 너희는 사흘 후에 갈릴리로 오너라.”(마26:32) 그런데 아무도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냥 하늘나라를 가시지 않고,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열한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빈 몸으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의 모든 여건이 우리 육체와 같습니까? 육을 가지셨던 분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려면 지구를 벗어나야 하고, 그 먼 거리를 가는 여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주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육이 가는 것이 아니다. 영이 가는 거다.”(요 6:63 참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건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까 봐 숨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방에 몰래 모

여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제자들끼리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의논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가운데 주님이 떡 나타나신 겁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식 성령을 부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정하면 정하여지리라.”(요20:22-23)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청년 두 사람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자, 이젠 별 볼 일 없다 끝났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두 청년들하고 웬 낯선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두 청년이 “저희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일이나 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이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성경을 연구한다면서도 모르는군요. 그분은 돌아가셔도 부활하여 다시 살도록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 그걸 믿어야 하지 않소.” 하고 한참 설명을 해 주시면서 가다 보니까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선생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동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으니 저희들 집에 머물다 가십시오!” 하고 낯선 사람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모습이 주님으로 변하더니 그 순간 주님은 행방불명된 것입니다.(눅24:31) 간데도 온데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네들이 주님에게 음식을 대

접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들이 섬겼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반가워하는 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순간 다른 곳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화무쌍한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20세 때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감에 항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나이 30때에 50대처럼 늙어 보이도록 쇠하여진 모습으로 계셨던 겁니다.(요8:57)

그런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럼 하늘나라로 가서서 무얼 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주의 종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는 우리의 육을 갖고 갈 수 없는 세계일 뿐이지, 사실상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변하기 전의 생명체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생명체와 흡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육으로 돌아간 생명체가 존재하듯이, 육의 생명체가 변하면 아담의 존재와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범죄하기 전의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과 같은 생명체를 부여받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요14:6)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요14:6)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 똑같은 형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달나라에 갈 때 그곳에 가서 죽지 않도록 입는 옷이 우주복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화성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자는 340억을 들여서 화성 티켓을 사 봤습니다. 화성에 갔다 오는데 비용이 340억 원입니다. 가는데 8개월, 오는데 8개월 합쳐서 열여섯 달이 걸린답니다.

수년 전에 목성을 향해 떠돌이별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이 용두동만 하고, 더 큰 것은 서울시만 합니다. 우주 안에는 바윗돌들이 수없이 떠다니는데, 그게 지구에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그때 지구를 대기권이 감싸서 운석들이 다 녹아 버립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별똥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바윗돌들이 11개 정도가 목성의 인력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어떤 천문학자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목성과 부딪친다는 것을 지구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미국 나사 우주국에서 그걸 망원경으로 찍었는데, 예상과 1초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과학이 대단한 겁니다. 목성에 부딪쳐 뚫린 구멍에 지구가 들어가고도 남는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지상에서 만들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달나라에 가려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지구에서 만들어야 가서 죽지 않습니다. 화성에 가려면 화성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구에서 옷을 만들어서 입고 가야 살아남 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살 수 있으려면,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재료에 의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나라 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Chapter 27.

오늘의 우리 역사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상식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직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듣게 되면 의아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고생은 끝이 나고, 이제 주께서 이 영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세계를 모르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를 모르니 자연스럽게 너 나 할 것 없이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소리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썩을 육신이 썩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고전15:51) 하고 순교하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대해 기독교가 해답을 내놓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하여는 의문이 따르도록 성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또 따르는 측근들이 궁금하여 주님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하늘 나라에 대해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땅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큰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육적인 유대 왕으로 군림할 것을 기대했는데,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까지도 어리둥절했던 겁니다.

주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된다.”(마22:30)고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천

사는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다면, 천사는 뭐 어떻게 생겨서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느냐 하고 궁금히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영의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아는 시대가 되어야만 밝혀지기 때문에, 성서에도 영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한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지옥에 대한 공포도 갖고 있지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만,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천국이 뭘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합니다. 또 지옥이 뭐냐, 불 구렁텅이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글자 그대로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높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천사와는 다릅니다.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건데, 어째서 너는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요 14: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육을 갖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과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모습이 같으냐?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우리와 같이 대화도 나누고, 악수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하시고, 잠도 같이 잘 수 있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의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눈은 불꽃같고, 머리는 백발같이 휘날리고, 발이 주석 같고, 광채가 나서, 요한이 바라보다가 그만 쓰러져 죽은 자같이 됐다고,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계1:17) 그래서 주님이, “요한아! 나니라. 네가 날 보고 기절을 했지만, 내가 너하고 지상에서 같이 있었던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이라면 사도 요한이 보고서 기절할 리가 없습니다. 반갑기만 했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산지기처럼 보여,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알려 주십시오.”(요20:15) 이렇게 주님과 대화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사흘 만에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고 말씀하셨을 때의 음성이 사흘 전의 음성이니까 알아보고, ‘아이고, 주님이셨구나!’ 하고 만지려고 하니까 주께서,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한 고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요20:17) 마리아가 겪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니

라.”는 말씀은 원칙적인 얘가지, 모습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계신, 변한 주님을 본 사도 요한은 까무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의 모습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의 주님의 모습이 같습니까? 변화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죄를 벗어 버리고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모습이 각각 달라집니다.

주님이 짐승과 더불어 전쟁하는 내용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요한 계시록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알기 전에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주님이 짐승과 더불어 싸운다는 등, 그 뒤를 십자가 군병이 따른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동화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화 얘기냐? 아니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변하는 것은 굼벵이가 매미로 변하고, 잠자리 애벌레가 잠자리로 변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화장실에 다니고 하는 이런 생명체에서, 화장실도 필요 없고, 죽음이 필요 없는 영체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주님이 영의 세계에서 싸우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두 감람나무뿐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악령과 싸우는 것입니다.(계11:7)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군병을 기르는 소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여건이 여느 선지자의 경우와 같습니까? 전혀 다르니까 옛날에 쓰던 법과 다른,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법을 이긴자가 세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세운 법을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 필요해서 지시 하셔서 만든 법입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는 시대에 과거의 법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면 따로 어떤 인물이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전에 하던 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군병을 길러라.” 하고 요구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요구 조건을 이루어 가는 시대에 따르는 백성들이나, 끌어가는 지도자나, 옛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따라가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옛날 것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하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그건 해당치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신앙인들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역사를 만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 은총을 어떤 사람은 받기 싫어서 안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받는 장소를 만나지 못하여 헤매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이 이 진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종과 함께 움직이는데, “한 생명이라도 내게 필요한 군병을 길러라.” 이것이 우리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필요로 하느냐? 땅에서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재료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필요한 군병을 길러 내는 재료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된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시대에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 그 이유는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2,500년 전에 나 여호와가 지시한 말이 지금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하고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지시가 없다면 떠들어서 뭘 할 겁니까? 그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믿노라고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백만이 모여도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들은 게 똑같으니까. 뭐 하늘의 섭리를 알기를 합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 듣기를 합니까? 아무리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해도 성경을 소개하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

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이긴자를 만났으니까 다행입니다. 이긴자는 뭐 하는 인물인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사명을 갖고 있는 이긴자의 슬하에 살기 때문에 정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수백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의 종이 축복한 생수로 축복을 받아갔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만큼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건 이긴자의 손길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예정에 없던 일을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이기는 그는 내 것을 가지고 역사한다.”(계2:27) 여러분, 이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임하시게 되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전한다.”(요16:13) 그래서 제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성경도 잘 안 보고, 준비도 없이, 예배 보는 시간이 되면 다른 일을 하다가 단에 서서 바로 얘기합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전합니다. 연구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흥내 내고, 저것도 흥내 내고, 별거 다 흥내 낼 수 있어도,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

우고 듣는 것을 말하지만, 인자는 직접 하늘에 오르내리면서 보고 들어서 전합니다. 그건 인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요3:11-13 참고) 옳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했으면 너희들이 내게 오지 못했을 거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 자식이 뭐 자기가 하나님하고 일체래.”(요10:33 참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일체니까 일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서 여호와와의 섭리에 대해서 들을 적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느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가니까, 너를 대하는 자가 나를 대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요14:9)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마3:17)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증거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신앙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 바로 전하면 동화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차근차근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한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 얘기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할 말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대예배 때에는 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물을 주면 체해 버리니까. 부작용이 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